

할렐루야! 세상의 화려함과 이목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19절

아름다운 그림 언어와 그 상징을 잃어버린 시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모든 행동과 언어와 시야를 집중하는 세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리고 보는 행위는 실제로 '경험'한다는 뜻이다. 말이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이해의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지만 더 오래 기억에 남기게 하는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는 것의 효과와 매력에 빠진 인류는 '보기'에 대한 발전을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은 "숏폼(short platform)"의 시대다. 오프리 왕조 때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받던 악의 모양이 오늘의 숏폼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자신이 걸음마 수준의 하수였음을 깨닫고 놀랄지도 모른다. 손가락만 터치하면 펼쳐지는 환관과 악의 모습은 키보드로 그 내용의 주제를 담은 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용들로 가득하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그 도록 이미지의 힘을 두려워했던 기독교는 이미지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수영하며 즐기고 있는 시대를 맞았다.

나 자신을 비롯해 세상과 교회와 사람들의 모습에 때로 소망을 잃고 한마디 글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환상에 놀라 힘이 빠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같이 된다"



는 약속(단 12:3)을 보기 위해서다. 별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세상 속에 힘을 내야 하는 모든 성경구절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다니엘이 느꼈을 외로움의 질은 어두움을 느끼고, 마음 어딘가에 쫄쫄 숨어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내가 이 시간 살아내야 할 소명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뿐이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 더하는 별이 되고 싶다는 생각, 주위 사람들과 그런 별들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진다.

진실로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다채로운 상징과 이미지를 빼곡하게 담고 있는 탁월한 문학 작품이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 설명하지 않고 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경험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완성하셨다. 자신을 왕으로, 때로는 목자로 비유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이시며, 나팔과 우렛소리와 함께 나타나시며, 그의 등장에는 위엄있는 보좌가 그려진다.

특히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상징 행위들을 볼 때, 그것을 자세히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전달하시는 방법에 대해 목상하게 된다.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표하여 자기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그중 열 조각을 주었던 선지자 아히야의 퍼포먼스, 연합과 은총이라는 이름의 각각의 두 막대기를 꺾는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스가랴, 삼 년을 빛은 몸과 빛은 발로 다니며 포로의 삶을 미리 보여준 이사야,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메시지와 함께 백성의 원로와 제사장들 앞에서 깨뜨렸던 예

레미야, 390일을 옆으로 누워 지내며 포위당하고 심판받는 백성의 미래를 보여준 에스겔, 그 외 수많은 행위로 순종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발터 아이히로트(Walter Eichardt)는 에스겔 4-5장을 주해하며 이러한 선지자의 상징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예고하고, 구경꾼들로 하여금 그 입박한 현실성에 참여하도록 이끈다고 말했다. 성경 속에는 그밖에 다양한 그림과 상징이 넘쳐난다. 독수리, 사자, 뱀, 양, 비둘기, 말 같은 동물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백향목,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은 나무의 비유, 풀과 백합화와 살구꽃 등 수많은 식물과 열매의 비유,

(3면으로 계속)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진실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지시를 잘 알고 있다(엡 6:4; 골 3:21). 하지만 자녀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상황에서 사랑으로 하는 징계와 격분이 동기가 된 징계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자녀 훈계와 양육에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바울은 자녀가 격노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두 가지 분명한 지표를 제시한다. 분노와 낙담이다. 십오 년 이상 청소년 상담을 하며 가정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생생하게 목격한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염없이 분노와 낙담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인 양육 행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깊이 생각했다. 단지 교훈과 양육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억압하고 짜증 내게 하는 양육 유형이 분명히 있다. 중요한 건 부모의 양육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양육을 통해서 복음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부모의 명령과 관련한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한다.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점이다. 가족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바울은 우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양자로 "미리 정하셨고"(엡 1:4-5), 그래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도록 한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전달한다(6절).

(9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목회단상 여병현 목사



푸른초장 임수병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PTSA.EDU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202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모집
개강일: 2024년 8월 26일
입학설명회 참석시 입학금 \$100 면제

온라인 입학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Zoom ID: 626 756 1800
★ 날짜와 시간은 미서부 기준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15605 Carn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 926 1023 (EXT 300)

학사과정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ABHE
2024년 8월 9일 (금) 오전 10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Ptσα.edu)를 참고해주세요
Cal Grant & Pell Grant 학자금 지원
현역 및 재향군인 학자금 및 재정지원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

석사과정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ABHE & ATS
2024년 8월 2일 (금) 오전 10시
2024년 8월 9일 (금) 오후 4시
선교학, 중국어 선교학 ABHE & ATS
2024년 8월 2일 (금) 오전 10시
2024년 8월 9일 (금) 오후 4시
상담심리학 ABHE & ATS
2024년 8월 16일 (금) 오후 4시
전문코칭학 ABHE
2024년 8월 16일 (금) 오후 4시
English M.Div. ABHE & ATS
2024년 8월 12일 (월) 오후 2시

박사과정
목회학 ABHE
2024년 8월 12일 (월) 오후 4시
선교학, 선교학철학 ABHE
2024년 8월 8일 (목) 오후 3시

유학생 1-20발행!

시론

꼭 다시 만나야 할 사람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피로스의 승리란 말이 있다. 기원전 280년 경 그리스 북부의 에페이로스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피로스 왕은 연전연승하였다. 그러나 피로스 왕의 군대는 이겼으나 손실이 엄청났다. 그래서 피로스 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서 한번만 더 승리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 날 거야." 그래서 피로스의 승리란 상처받은 승리, 상처받은 영광이란 뜻이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겨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 비록 이겼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이다.

부부 싸움이 그렇다. 배우자를 이긴다 해도 이긴 게 아니다. 비록 이길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안긴다. 이겼는데 가정이 깨진다면 이긴 게 무색해진다. 교회의 다툼도 마찬가지다. 이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이 교회의 싸움이다. 교회는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먹칠이 되고, 싸운 당사자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어린 성도들,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지도 않고 싸움이 있다는 자체로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그러므로 교회의 싸움은 누가 이겨도 피로스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사실 교회는 절대 싸워서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시고 모든 교회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분쟁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목회자 중 한 사람이며, 경건한 청교도 신학자요,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였다. 그런데 그가 24세에 부임하여 23년간 목양한 노스햄프턴교회에서 교인들과 신학적인 문제로 충돌하여 1750년 6월 22일, 해임 찬성 230표, 해임 반대 23표로 그만두어야만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교회는 이를 두고 18세기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10일 후인 7월 2일, 그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후1:14)는 본문과 "심판 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라는 제목의 고별설교를 하였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다. 심판 날 목회자와 교인들이 만나는 방식은 심판 날 온 인류가 일반적으로 서로 만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목회자와 교인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심판 날에 목회자와 교인들이 만나는 방식은 이 땅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만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 땅에서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며,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으나, 심판 날에는 서로 불변하는 상태에서 만나고, 오류 없는 빛이 충만한 상태에서 만나고, 서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며 만나게 될 것이다. 왜 만나는가? 목회자와 교인들은 세상에 있을 때 서로를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보고 하기 위해, 또한 자신들의 분쟁에 대해 재판을 받기 위해, 그리고 서로에게 한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판결과 보상을 받기 위해 함께 만나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처럼 목회자와 교인들만 심판대 앞에서 만나겠는가? 교인과 교인도 만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투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말만 해야 할까? 나는 지난 7월 둘째 주 LA에서 열린 제 10차 세계 한인선교대회(KWMC)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였다. 2천여 명의 목사, 선교사, 성도들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대회 중에, 대회를 끝내면서 계속 외쳐댔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찬장이 떠나갈 듯 외치는 그 우렁찬 음성을 들으면서 구원의 그 이름 오직 예수라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다툼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상상해 본다.

minkyungyob@gmail.com

존엄하게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정체성

소중한 친구 바이올렛이 호스피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녀를 제대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 전직 외상 외과 의사로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을 보았고, 피를 들이마시며 마지막 숨을 쉬는 환자들도 보았다. 홀로 두려움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속삭이는 배우자의 팔에 안겨서 죽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보내는 바이올렛의 마지막 순간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녀의 정체성을 반영하기를 바랐다.

바이올렛은 호스피스에 들어간 직후 의식을 잃었지만, 몇 시간이 며칠로, 며칠이 일주일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갔다. 죽어가는 사람을 수십 번이나 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긴 시간은 내게 충격이었다. 한때 전기톱을 들고 거친 땅을 개간했던 강하고 씩씩한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발 그녀를 본향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존엄하게 죽기?

존엄사는 무슨 의미일까? 추상적으로, 우리는 모두 가족에 에워싸여서 최소한의 고통과 불안을 느끼면서 존엄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 같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어지러운 현실에 대비하려고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죽음이라는 과정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존엄사"라는 문구와 안락사를 섞을 때 대화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다.

안락사 또는 의료적 안락사 지원(MAID)의 경우에, 말기 환자는 스스로 내린 처방(의사조력사, PAS) 또는 의사가 놓는 죽임의 주사(안락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끝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두 가지 관행 모두 존엄성과 자율성을 동일시한다. 예를 들어, 의사 지원 자살을 옹호하는 단체, 'Compassion and Choices'는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확실한 마무리"는 "자신이 즐겼던 삶에 걸



맞은 삶의 마지막 경험을 계획함으로써 가능한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사랑, 목적, 그리고 대리인(agency)"이라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존엄사 여부는 힘과 목적, 대리인에 달렸다. 따라서 약하고, 삶의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인간의 존엄성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슬프게도, 캐나다의 MAID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조력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MAID 수혜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언급된 고통의 원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의 상실(86.3%)이었다. 두 번째가 목욕과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의 불가능(81.9%)이었다. 통증 문제가 여전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였다(59.2%).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사실은 조력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다름 아니라 의존과 무활동이라는 사실이다.

존엄성에 관한 성경적 관점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나 자율성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창 1:26-27)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타고난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견거나 먹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존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 약함과 고통이 존엄성을 앗아가지 못한다.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성품에서 비롯한다.

캐나다의 중환자 치료 의사인 이완 골리거(Ewan Goligher)에 따르면, 조력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하기보다는 가치를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How Should We Then Die? A Christian Response to Physician-Assisted Death)'에서 이렇게 썼다.

조력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옹호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가 과연 진정으로 본질적인 인간적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사람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들면서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조력사에 대한 지지는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외재적 가치는 있지만 내재적 가치는 없다는 견해를 드러낸다. 사람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짜로,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37-38, 40)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아숙 GUEST HOUSE
패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완)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Seeking EM Pastor
The Southern Korean ARP Church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is currently seeking for full time English Mistry Pastor and Youth Ministry pastor.
We are seeking someone who:
1. An ordained minister in the Reformed Church
2. Legal U.S. resident
3. Experience in decommissioning is welcome
4. Youth ministry pastor can be seminary students

담임목사 청빙 공고
연합교회는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체 교회로서, 주목가에 300명이 예배 할 수 있는 본당과, 미국 본들의 예배실, 교육관, 도서관, 유아실, 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 다문화 교회로, Fort Campbell 군부대와, 또한 가까이 근접해 있는 네슬빌, 한국 유명 기업인, 한국 타이어, LG 전자, 신홍 글로벌, 한국 앤 컴퍼니, 동화 일렉트로라 등.. 오래전에 이곳 클락스빌 에 들어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미국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한국총회 연합교회는 목사님 사임 이후,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타 교단일 경우, 위 교단에 입직 가능 한자)
자격: 1.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자 (졸업 증명서)
2.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자
5. 연령: 45세-63세
제출서류: 1. 최종 학력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2. 추천서(2통), (추천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3. 목회비전 및 자기 소개서(본인 사진과 가족사진)
4. 서류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제출마감: 1. 2024년 7월-21일부터- 9월21일
제출처: 1. The United Church.(연합교회)
P.O Box 338, 1160 State Line, Oak Grove, KY 42262
2. E-mail: Keejong@gmail.com cc ddangsoonyi7@gmail.com
기타: 1.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첨부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3. 담임목사로 예정 선출 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추신: 연합교회는, 켄터키 옥그로브 와 테네시 클락스빌 경계선에 있으나, 교회 건물 주소만이 켄터키에 속하였을 뿐, 교인 10% 를 제외한 모두가 테네시 주, 클락스빌 시 에서 활동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Church 청빙위원회
교회:P.O Box 338 1160 State Line, Oak Grove, KY 42262
교회: 270-439-0833

아름다운 그림 언어와...

(1면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갖가지 생활 속 비유들, 사도 바울의 운동경기와 절제하는 군사의 비유, 전신갑주, 한 몸과 지체의 비유들, 요한의 계시록 속의 큰 붉은 용, 흰 돌, 유리 바다, 일곱 뿔, 두루마리 등 온갖 신비한 이미지와 상징들은 셀 수 없다. 이러한 은유와 비유의 본질은 하나의 사물을 다른 각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에 있다.

나는 한때 왜 하나님께서는 세제의 상수리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옆에 제단을 쌓게 하셨는지(창 12:6-7),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난 곳도 하필 다른 나무가 아닌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였는지(삿 6:11), 여호수아는 왜 “여호수아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언약을 기념하는 큰 돌을 세웠는지(수 24:26) 궁극했다. 믿음의 상징으로 등



장하는 독수리를 깊이 공부해 보기도 하고, 욕기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하게 자랑하셨던 리워야단이 어떻게 생겼을지 밤새껏 상상해 보기도 했다. 후에 해석학을 공부하며 상수리나무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전문용어로는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은 하지 않아야 한다. 바른 해석을 참고하려는 노력 없이는 잘못된 상상으로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려는 유혹과 반드시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림과 이미지는 우리 기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다기 때문에 때로 많이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성경 속 이미지들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사회적인 맥락 속 대중적 해석은 저자의 목적과는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옳은 방향으로든 잘못된 방향으로든 이러한 상징은 문자적 의미 이상의 의미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때문에 성경의 시각 언어는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상상으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림과 이미지의 매력은 진리를 일부러 가리기도 하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시각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좋은 해석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하고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 수고로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더 넓게 우리의 ‘보는 것’을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함이다. 최근 나무의사 우종영의 나는 나무에게서 창조하신 갖가지 종류의 아름다운 나무들의 생태 속에서 깎집어내는 삶의 이야기가 깊이 마음을 울렸다. 그러면서도 한편, 수십 종의 나무가 언급되고 유비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도 이런 아름다운 상상에 무디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다.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 일상의 경제 활동에 관한 이야기, 운동경기를 통한 은유, 건축과 그림과 음악의 유비, 범정과 시장통의 이야기, 군대의 병사 이야기, 부부와 자녀들과 가정을 통해 말하는 진리 등, 우리는 성경이 다루고 있는 흔하지 않은 일에서 진리를 인식하는 일을 너무 쉽게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1-22) 호소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이

러 수많은 상징과 그림 언어를 사용했는데, 저명한 성경해석학자 앤서니 티슬턴(Anthony C. Thiselton)은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 속 그림과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한 장치처럼 작용하기를” 원했다고 확신한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좋은 모양은 힘써 눈에 담고, 그것으로 창을 삼아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동시에 바울은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헤아려 악한 것은 길모양이라도 따라 하지 말라는 중요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처참하고 끔찍한 환상을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펼쳐진다(에스겔 8장). 성전 안 은밀한 벽을 파서 뚫어 보니 그들이 숭배하는 이집트 신상들이 파충류와 짐승과 고물 그림이 보였고, 바빌론 다산의 신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모습,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차례차례 보여주신다. 가슴 아픈 장면들이지만 진짜 가슴이 아픈 것은 오늘날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이다. 재미로 타로카드점을 보고 여름엔 흥행쇼에서 난잡한 쇼를 즐기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삶을 찾아 누리는 대신

그 영광스러운 일상을 핸드폰 속 게임과 솟풍과 맛바꾼 일상의 장면들, 일부 교회에 설치된 현인실과 노래방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모양과 모습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타락한 백성의 모양과 다르지 않다. 보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기가 쉽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과 찬양이라는 매개물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축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며, 반대로 예수님과 성경을 떠나 모든 만물에 실부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적 사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바울이 그랬듯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넓게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상징과 그림으로 말하는 이야기들을 깊이 경험하고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왜 기독교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오래된 고민 이야기를 들었다. 갖가지 재미에 이끌려 시선이 고정된 사람을 돌이키는 길은 더 강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질문일 것이다. 나 또한 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요즘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글을 읽어도 어떻게 동시에 아이들의 포토크드와 패션에 빠져 있을 수 있는지, 오늘도 놀랐다. 조심스러운 여정이지만, 분명히 성경 속 수많은 상징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신비와 비밀의 세계에 발을 담그다 보면 그 즐거움에 온몸을 적시게 되고, 그 안에 펼쳐진 세계는 온 우주보다 넓고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시대 교회와 리더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성경 속 축만한 그림들을 먼저 경험하고 그 재미와 매력과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조명하시도록 기도하는 일이다.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고 싶단(단 12:3). 그리고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 어두운 시대 속에 밝게 빛나는 성운을 이루고 싶다. 눈에 보이는 구름, 파란 하늘, 이름 모를 들꽃과 아파트 화단 밑 수줍게 숨어 있는 뱀딸기까지,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는 세대를 꿈꾼다. 지어지는 건물을 보며 하나님의 연결된 권속을 떠올리고, 모퉁이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인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으며, 길가에 모이를 찾고 있는 비둘기를 보며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햇빛을 찾아 처절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동네 길목의 소나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모든 행동과 언어와 시야를 집중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목회단상

2024 하계 올림픽



여병헌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33회 하계 올림픽이 변질을 넘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시작된 올림픽의 그 순수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가 중요하며 승리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바르게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올림픽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파리 올림픽은 스포츠를 넘어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반기독교를 넘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의 이름을 북한으로 불렀다든지, 저탄소 친환경을 표방하며 운동선수들에게 채식 중심의 식단을 지탄을 받고, 예코 올림픽을 지향하며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고, 무질서로 인한 불편 같은 것은 파리 올림픽 위원회 운영의 문제이지만 개최식에서 화합과 포용을 외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멸시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례 우상을 상징하는 짐승의 머리를 요류기 중심에 새겨 넣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 기독교적인 행위를 온갖 수식어를 붙여 포장하고 변명하는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 만찬을 조롱하듯 동성애자들을 그 그림에 배치하고 기독교인들이 끄떡이 거부하는 우상숭배와 어린 아이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몰례를 상징하는 짐승의 머리 모양을 엠블럼에 사용합니다. 또 별거벗은 나체를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등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혐오감을 갖고 불쾌한 감정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울분을 넘어 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과 큰 교단과 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과 기독교 지도층 인사들은 서로 앞다투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격분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이런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믿음과 선교의 열정이 식어버린 무늬만 성도인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고 빛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로 부터 짓밟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벧전 4:7).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믿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열정을 상실하면 사탄에 짓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영적 올림픽 경기를 치루는 선수처럼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쁜하고 게으른 신앙에서 벗어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땅 끝 선교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전도의 손을 내밀며,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cefyeo@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대민족연합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0) 821-1112, Fax: (770) 344-3182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EN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410) 461-1235, Fax: (410) 461-4933(C) 3185 St. Johns Lane, Elkcity City, MD 21042	보스탄성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목회 상담 상담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3,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xton, MA 01748	센터빌안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831-667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01) 820-9049, www.jeas.com 600 Kro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45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성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842-0288, Fax: (215) 8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회상담부: 오후 8: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성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636-6675, www.tacomap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가난이 준 가르침

지난주에 말라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방문 목적은 말라위 선교센터 헌당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탄 헌금의 일부 분을 말라위 선교센터 건축헌금으로 보냈는데, 그 선교센터가 드디어 완공되어 약 800명의 말라위 학생들과 함께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볼모지에 세워진 이 선교 센터는 예

실, 남녀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봉제공장, 닭 농장, 기술학교, 단기선교팀 숙소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입니다. 또 다른 방문 목적은 말라위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 850명이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최빈국

입니다. 2023년 국제 통화기금(IMF)에 의하면, 말라위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미화 496달러인데, 195개 국가 중 191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평소에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그런데 캠프 동안에는 세끼와 두 번의 간식을 먹고 기쁘게 춤을 추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말라위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캠프 동안에 가난한 나라에서 자라는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난에 대해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가난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말라위처럼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자는 정말 가난합니다. 저들이 생전에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누가 "빈곤의 대물림은 사회적 살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들은 가난을 대물림함으로써 자손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처럼 부유한 선진국에도 가난이 있습니다. 먹을 것, 집, 자동차가 있어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등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둘째, 가난한 자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과 배려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실린 '통이 찌그러진 분유'라는 글입니다.

"만원밖에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분유를 사러 갔다. 가게 주인은 한통에 만원이 넘는다고 말한다. 힘없이 돌아서는 아이 엄마 뒤에서 주인은 조용히 분유통을 떨어뜨린다 '통이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값싼 동정,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 지키지 못할 약속은 금물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작은 사랑은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셋째, 진짜 가난은 소망이 사라진 상태임을 배웠습니다. 말라위에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공항, 길 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 미화 3불 정도의 하루 이 금역조차 벌지 못해 길거리를 서성이는 젊은이들, 하루 한 끼를 먹는 아이들, 달리는 차를 세워서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는 교통순경들... 가난의 대물림으로 고통을 겪는 말라위 사람들의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캠프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해서 그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 중에도 예수를 믿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통해 철학같이 어두운 이 나라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 단체인 컴패션의 웨스 스탠포드(Wess Stafford)대표의 가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난이란 못 먹

고 집 없는 것이 아니다. 가난이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하는데, 세상이 악하고 죄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그 기회가 없는 것이 가난이다." 그렇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라위 나라는 가난합니다. 말라위 국민은 오늘도 가난에 허덕입니다. 하지만, Pace Academy Foundation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만난 말라위의 청소년들이 가난하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지요? 저들에게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오늘도 가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푸/른/초/장

임수병 목사

(필라교협 회장, 필라사랑의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1:4)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가련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때냐고,' 아직도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혁명은 '군사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혁명은 소위 '성령의 혁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예배를 하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적어도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C로 시작됩니다.

Communication, Communion, and Community

첫째, 성령이 임했을 때 소통(communiation)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은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대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소아시아의 온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의 말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소통이 이뤄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통이 깨지는 사건은 바벨탑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자기들만의 높은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간섭을 벗어나자는 것이고, 흠여집을 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소통이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했던 인류는 결국 사망으로 흠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셈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통은 말이 통하지 않는 소통의 어려움 때문

입니다.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세대 간에 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보와 보수가 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이뤄진 '불통'을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소통'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살아있는 교제(communion)

마지막 세 번째 C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방언이 터지면서 소통(communiation)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 안에 진정한 교제 communion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참다운 공동체 community가

로 교회에 모여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3C'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이루려면, 성령의 소통, 성령의 교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3C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3C는 현상들이고, 성령은 본질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이뤄집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베드로는 오늘 36절에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성령의 소통, 성령의 교제,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2장 4절,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역시 초대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틀 목사가 말했듯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지 않나, 성령의 열매가 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내 안에 많아지는 것을 의미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 문도였습니다. 380은 어디 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충만을 명령으로 받들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죄사함'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주님이 오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도 주기 원하셨던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죄사함'에만 신앙생활을 멈추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죄사함에서 멈추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으로 채워 기록해져 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우리 안을 성령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홍수처럼 범람하고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잘 청소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니, 내 마음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소통이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모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소위 '성령의 혁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저 귀신 쫓는 어떤 신성한 영으로 취급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 정도로 폄하하는 한,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웠으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lippastor@gmail.com

성령의 3C 혁명

사도행전 2:38-47

가 회복되었습니다. 45, 46절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면서 떡을 떼며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사귀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사귀어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수련회 때, 부흥회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위로하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집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고 마음을 비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귀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3C 혁명"입니다. 우리 모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communication', 소통을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 'communion' 진정한 교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며 교제하는 하나의 공동체 'community'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가능했느냐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도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막힘없이 '소통'하고 싶어 하고, 마음 터놓고 '교제'하고 싶어 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과 사랑으

습니다. '성령의 선물', 예전 번역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게 원하셨던 선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게 원하시는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직분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를 믿는 모두에게 부여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초대교회처럼 이런 하지 않습니다. 성령충만이란, 성령이 나를 더 많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라는 말씀, 우리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11:13) 생똥맞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십니다. 성령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이 작게 잡아 500여 명이었으리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자!



2024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최후의 만찬'에서 죽음의 영을 재현하는 '참수'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CNN은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이 "그 어느 때와도 다른 개막식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멋지게 지켰다"며 "금요일 밤의 파리 파티"라는 당혹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또 다른 쪽 네티즌들의 말처럼, 센강변의 디스토피아적인 이교도들의 악몽, 죽음의 영이 기뻐하는 자리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며, 더 자세한 내용과 성경적 해석은 tvnext.org 에서 다룹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당연히 '최후의 만찬'을 변태적으로 표현한 개막식 연출내용입니다. 사진 중앙에 마치 성스러운 빛을 표현하는듯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성은, 프랑스의 유명한 레즈비언 운동가인 DJ 바바라 부치 (DJ Barbara Butch)인데, 일부로 여성을 '최후의 만찬' 페러디에서 예수님으로 포즈를 취하게 하고 그 주위에는, 제자들도 연출하는 여장을 한 남성들 중앙에서 DJ는 손으로 '사랑' 표시를 만들어 보이며, 잘못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사진 속,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 옷을 입은 긴 금발 머리를 한 수염난 남성은, 나중에 캣워크(Cat Walk)에서 선정적인 춤을 춰줍니다. 캣워크는 바로 최후의 만찬 테이블 앞에서 있었는데, 어린 소녀, 소년들도 다 있는 곳에서 성적으로 선정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연출한 상위에, 충격적인 모습들은 개막식 동안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금도금 정반이 그 앞에 놓였는데, 정반 덮개가 올라갔을 때, 차마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약간의 나뭇잎으로 간신히 몸 부분만 가린, 온몸에 푸른색으로 칠하고 금가루를 뿌리고, 밝은 노란색 수염을 가진 거의 벌거벗은 스머프 남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푸른 음낭" 공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푸른 색깔 남자도, 까만 옷을 입은 거의 남성에게서도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죽음의 영"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올림픽 오프닝

루이스 16세의 부인이자 프랑스 혁명 전 프랑스의 왕실의 마지막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목이 잘린 것을 표현. 그녀는 15세에 시집을 와서 37세에 죽임을 당합니다. 건물 창문 안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 조각상들이 유명한 프랑스 캐릭터의 포즈를 취하며, 각 조각상은 여왕처럼 자신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아래에서 오페라 가수를 태운 커다란 배가 천천히 노래하며 항해하는 것을 연출했다는 사실.

헤비메탈 뮤지션인 고지라(Gojira)밴드 노래와 함께 Marie Antoinette 여왕의 참수를 보여줍니다. 합창단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프랑스 혁명의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인 마지막 왕비가 신하들에 의해 참수되고, 프랑스 역사의 상징적인 순간을 재현한 붉은 깃발과 불꽃놀이로 건물 벽이 폭발하면서, 죽음과 피의 장관을 연출하며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네로 황제가 도시를 불지르고 감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는 "죽음의 영"이 장악하며 즐거워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최후의 만찬, 황금 송아지 우상,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백한 말(죽음의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를 모독하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반응들...

크리스천이 아닌 올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은 아이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

견들이 많습니다. 대주교는 "형제애와 평등"을 증진하는 스포츠의 역할을 상기시켜주며, 기독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순간 중 하나인 "마지막 만찬"을 모독하는 '개막식 풍자 연출로 인해 성스러운 기독교의 숭고한 열망이 더럽혀졌다'고 가슴을 찢습니다. 살롬과 말보로 주교인 다니엘 프렌치는 '지금까지 전례에 없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조롱했으며, 교회 당국이 절대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시켰다'고 개탄했으며, 이탈리아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는, '이번 프랑스 올림픽은 기독교에 대해 "모욕적이고 천박하다"'고 개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페러디가 "'extremely offensive to Christians.'"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불쾌감을 준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 프랑스 올림픽 대변인, 사과문 발표, 그러나...

반발이 거세지자 파리 2024의 대변인인 앤 대사는 "어떤 종교 단체에도 무례함을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토마스 졸리와 함께) 우리는 커뮤니티의 관용(inclusiveness)'을 기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리 야망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 사과는 더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밧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도다" (마 18:6-7)

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보내는 곳에 서명하기 원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6.25 휴전 71주기를 맞았는데 한국을 도와준 미국과 유엔에 고마운 마음이 많은데요. 강연자가 북침주의 전도자인 빌리 그래함이 한국을 위기에서 살린 영웅들 중 한 명으로 보았는데 그가 행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 이희은

한국을 살린 빌리그래함

A: 좋은 질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1개월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북한의 침략전쟁을 6.25전쟁 혹은 한국전쟁이라 일컬었습니다. 소련군 대위였던 북한의 김일성은 8.15 해방이 되자 북한을 공산화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들을 파괴하였습니다. 남한도 공산화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허락하에 1950년 6.25일 새벽에 남침하였습니다. T-34전차를 앞세워 밀고 내려오며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되고 한국의 9/10가 점령되고 대구 부산 낙동강 전선만이 남았습니다. 공산화가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행히도 UN군이 참전하고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군이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두만강까지 북진하여 이승만이 원했던 남북한 민족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140만명의 중공군의 개입으로 38 휴전선을 두고 전쟁은 일단락 끝났고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7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빌리그래함을 맥아더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살린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빌리그래함은 6.25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지자 휴가간 트루만 대통령에게 급히 정보를 보내어 당신은 한국을 도와 공산주의에서 한국을 구출해야 할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전보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백만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인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We cannot let them down. By communism.)" 빌리그래함은 6.25전쟁을 이데올로기 전쟁 즉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바로 그 다음날 유엔 안보리가 모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 모든 회원국에게 연락하여 신생 대한민국이 국토를 회복하도록 군대를 파송해 달라는 전문을 보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6개국이 지상군을 파송하였고 스웨덴, 이태리,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등이 병원선과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구하기 위해 파병해 준 미국과 유엔의 16개 나라에 의해 한국은 공산주의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고 오늘날 세계 10위안에 드는 선진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빌리그래함 목사가 트루먼을 설득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빌리그래함 목사는 한국의 은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어 영적으로도 살렸고 6.25때 군인을 180만명으로 보내어 5만명이 죽고 10만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마운 나라입니다.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진짜 필요한 믿음

기독교의 기적(τέρας)은 자연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이스럽고 놀라운 일들

가리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 어떤 선입견적인 생각에 짓눌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약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으로 단정을 하고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좌절감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

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더욱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선한 도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더욱 기적을 베풀어서 믿음이 강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한 방법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지든지 아니면 기적이 베풀어지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신뢰 자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 삼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을 신뢰하는 근거로 삼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당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기적 자체에 두려고 하는 유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 유혹에 우리의 생각이 살짝이라도 넘어가면 지극히 실적 중심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의 울

무에 걸려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극히 믿음이 약한 상태로 추락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입니다. 기적을 간구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의 짧은 순례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하나님의 은사로 행복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펠프스 후계자'로 불리는 미국 수영 국가대표 케일럽 드레슬의 왼쪽 어깨와 가슴에는 커다란 독수리 문신이 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내용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한때 이 구절을 비롯한 성경 구절을 얼굴에 써놓던 드레슬은 지난 2015년 한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기록을 내기보다 하나님이 내 은사로 행복해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5관왕을 달성한 그는 28일(한국시간) 2024 파리올림픽 남자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올림픽 무대에 오른 세계 각국 선수들 가운데는 드레슬처럼 평소 자신의 신앙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이들이 적잖다. 미국 크리스천티비투데이(CT)는 최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응원할 기독교 선수 28인'이란 기사에서 20개국 13개 종목 선수의 신앙 이야기를 전했다.



동메달리스트다. 진팅은 기독교인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북수마트라 카로족 출신이다. 그 역시 SNS에서 신앙을 밝히는 편이다. 그는 게시물이나 댓글에서 "예수님, 당신의 선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등을 언급해왔다.

FC 도쿄 골키퍼로 일본 축구 남자대표팀에 합류한 노자와 다이시 브랜든은 일본 내에서 흔치 않은 기독교인이다. 14살 때부터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노자와는 인스타그램에 축구 경기 사진뿐 아니라 성경 구절과 찬송 가사 등도 게시한다. 찰스 스피넬 목사의 '걸어 다니는 성경이 돼라'는 경구가 담긴 이미지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웃이 읽는 성경이 돼 그들에게 빛이 돼야 합니다"란 글도 올렸다.

재생에너지가 EU 전력 30% 생산... 화석연료 첫 추월

재생에너지가 올해 상반기 EU 전력의 30%를 공급하며 화석연료 발전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최근 발표한 EU 13개국에 대한 전력 보고서에서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발전이 2024년 상반기 발전량의 3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석탄 발전은 24%, 가스 발전은 14% 줄었다. 엠버 보고서에 따르면, EU 13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은 올 상반기 385.6TWh(테라와트시)로 증가해 343.5TWh를 기록한 화석연료 발전량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특히 독일,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역전이 일어났다.



EU 13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은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상반기에 600TWh에 근접했던 화석연료 발전량은 큰 폭으로 축소됐다. 엠버 보고서

는 EU의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에 힘입어 올 상반기 발전 부문 탄소 배출량이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태양광 발전의 붐에 비해 풍력 발전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윈드파워유럽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6.2GW(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을 늘렸지만 이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엠버의 분석가인 크리스 로슬로우의 풍력과 태양열의 증가가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는 전력 부문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진행성 핵삼마비(PSP)를 앓고 있는 제니퍼 웨스턴(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25일 AI 기반 목소리 모형을 사용해 하원에서 연설했다. 이런 방식의 의회 연설은 미국 헌정사상 최초다. 파킨슨 병 관련 질환인 PSP는 보행과 균형, 안구운동 장애 등을 일으키는 희소병으로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동반한다. 웨스턴 의원은 지난해 9월 PSP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재선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단상에 선 웨스턴 의원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병을 앓기 전 웨스턴 의원의 목소리와 비슷한 AI 목소리가 그의 육성을 대신했다. 그는 "PSP로 인해 이전처럼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지만 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행기와 휠체어를 이용해서라도 하원에 나와 투표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웨스턴 의원은 이전에도 문자-음성변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단상에 섰다.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탓에 로봇이 말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엔 소프트웨어 회사 '일레븐랩스'가 그의 원래 목소리와 흡사한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웨스턴 의원이 장애를 앓기 전 공식 석상에 등장했던 수많은 자료를 분석해 그의 원래 목소리를 복제했다고 설명했다. 웨스턴 의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AI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귀에 들리는 음과 같았다"며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AI 음성을 이용해 연설한 이유에 대해 "이 특별한 기술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강제 노동' 명시 안됐는데...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등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알리는 전시관 설치 등을 조건으로 등재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성' 부분이 일본 측 전시물이나 추도식 개최 과정에 얼마나 부각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본 내에서 벌써부터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앞서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 세계유산 등재 때처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강제동원 관련 전시, 조선인 노동자 기숙사 터 근처에 안내관 설치 및 안내책자 제작,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정례화 등을 조건으로 일본과 합의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회의에서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해 이미 현장에 설치한 전시물은 물론, 추도식 등 관련 후속 조치 이행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약속했던 '전체 역사' 반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언급할 때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노동'에 처해졌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8일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는 불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전시실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산케이는 군함도 등재 당시 한국과 합의를 한 것이 화근이라며 "사도광산 전시에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군함도 관련 약속 이행도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존엄하게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2면에서 계속)
성경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의상 존엄한 죽음이라는 말은 결코 인간 삶의 내재적 가치보다 자기 결정을 우선시할 수 없다. 오히려 필멸의 삶이 가진 신성함을 존중하는 동시에(출 20:13),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사 40:6-8). 고통 받는 사람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동시에(마 22:39; 마가 6:8),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에만 집중하는 것이다(요 11:25-26).
우리는 독립, 성취 또는 자율성이라는 명확한 목적 때문이 아

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창 1:26-28).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사람의 제일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진정한 존엄사는 주님에 대한 의존성을 염두에 두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그를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존엄함을 지키기

죽음은 마지막 원수이다(고전 15:26). 아무리 구체적으로 준비

를 해도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힌다. 왜냐하면 죽음은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설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토록 괴로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결코 생명을 앗아갈 권한이 없다. 그러나 사전 치료 계획을 통해 우아하게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의사 및 목사 사와 사전에 논의한 치료팀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지 있게 보내도록 도울 수 있다. 몇 달 남지 않은 환자에게 호스피스 케어는 다양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한다. 그들이 없다면 그 시간은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진리를 드러낸다(창 50:20; 요 11:3-4).

나는 이 모든 아름다운 과정이 친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무너지는 마음에 더 이상 바이올렛의 침대 옆에 있을 수 없었다. 병실을 나가려는 바로 그때 여자 원목이 부드럽게 내 어깨를 만지며 말했다. "삶과 죽음의 전환기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나는 항상 경이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있다니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원목은 병실을 나갔다.

다시 바이올렛과 단둘이 있을 때, 위로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

녀의 호흡이 점점 가늘어졌고, 조금씩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갔지만, 나는 여전히 친구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찬송 가집을 펴서 바이올렛이 가장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서른 번째 부를 때에는 눈물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바이올렛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부르고 또 불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분향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그녀에게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렀다.

그날 저녁, 눈이 붙어진 채로 병실을 나갔을 때, 바이올렛의 간호사가 내게 불렀다. "그 노래

말이에요. 당신 친구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씩씩한 바이올렛을 통해 역사하셨다. 심지어 의식을 잃고 무력하게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이올렛을 들어 쓰셨다.

불치병이 주는 슬픔과 두려움에 직면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by Kathryn Butler, TGC



개혁주의 입장에서 현대신학 비판 (1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III.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

(결론)

해방신학은 죄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힘이 죄라고 주장한다. 해방신학의 이러한 죄의 개념은 전통적인 서구 신학의 죄의 개념인 죄의 인간 개인성과 보편성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방신학은 그리스도를 사회적 차별과 구조적인 모순에서 해방을 가져온 분으로 이해한다. 특히 예수께서 주장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자유의 나라였다고 한다. 엘살바도르의 예수회 해방신학자 안 소브리노(Jon Sobrino)에 의하면 예수는 가난한 민중들과 같이 살았고, 그들을 사랑했으며, 하나님 나라는 그들 위에 먼저 임한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의 이런 삶과 메시지는 당시의 지배계급과 마땅히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들은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전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옳은 것임을 공적으로 승인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불공평과 억압에 저항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해방신학이 해석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이다.

해방신학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공동체로 이해한다.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해방신학자들이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미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바다 공동체(Base Community)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카톨릭 해방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적이라

고 비판한다.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해방신학에 따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위하여 노동계급과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교

할 것이라..... 품꾼의 삶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눅 4:18도 마찬가지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



회도 소외된 자들과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두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누가복음 1:52-53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권세있는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했다. 그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낮추신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즉 해방신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욱 좋아하신다는 마리아의 찬양이다.

해방신학은 말라기 3:5를 해석하면서, 품꾼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

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신학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 편에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가르치며 (갈 2:10; 약 2:15-16; 요 일3:17), 불의에 맞서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성경은 재물의 유혹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한다 (막 4:19).

그러나 해방신학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행동을 복음 메시지보다 더욱 앞선 위치에 둔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사회적 관심을 복음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근본적(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세상의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아니라 영적 복음의 역사의 결과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투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 20-21).

그리고 성경은 물질적(일시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영원한 것)임을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눌린 자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포함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높은 자 그리고 낮은 자들을 모두 포함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방문객 중에는 목자와 동방박사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눅 2:10). 하나님 나라에는 사회적 두 그룹 모두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 가난한 자, 주인과 종, 모두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성별에 따른 분열과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가져오신다(엡 4:15).

해방신학의 기초는 마르크스주의이다. 해방신학은 자본주의를 폭력적 혁명으로 전복하고, 만인이 평등한 지상낙원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계급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방신학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폭력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작성한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조아 계급투쟁을 위한 도구로 폭력을 정당화한 부분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계급투쟁에서 부르조아를 척결하는 게 바로 선이며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며, 마르크스 사상과 흡사하다.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층이 없는 유토피아 사회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의 사상은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에 대한 과장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장적인

개념이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으로 잘못 주장한다.

구원과 해방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죄와 인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개념은 해방신학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죄악성을 축소시키고, 그 죄책을 사회적 제도에서 전가시킴으로 인간의 책임을 면제시킨다. 개인적인 죄의 의미를 극소화시키고,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과 부조리가 곧 죄의 근원이 된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마르크스적인 사상이다.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새 사람과 새로운 사회는 성경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불공평한 사회를 혁명으로 바꾸고 난 후의 개인들과 공동체(교회)가 곧 새사람과 새로운 사회이다.

해방신학은 압박자와 피압박자의 이분법을 통해 사회를 규정한다. 하나님께서는 피압박자들과 함께 하시고, 압박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편다. 신학은 전체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방신학은 특수한 상황만을 강조하고 보편성을 무시한다. 해방신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압박자와 피압박자간의 투쟁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힘(폭력)의 사용을 정당화시킨다.

해방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기본은 인간의 실제적(praxis)이고, 삶의 정황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들은 이런 관점을 통해서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측면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해방신학자들의 신학 연구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역사적 상황과 실제적인 삶(praxis)에 근거를 둔다. 해방신학은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역사적 상황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그 상위에 맞춘다. 그러나 참된 신학과 신앙은 오직 삶의 절대적인 표준과 기초가 되는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딤후 3:16; 벰후 1:19-21; 엡 2:20; 계 22:18-19; 사 8:20; 눅 16:29-31; 갈 1:8-9)

해방신학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성,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분석, 구원과 해방에 대한 육신적이며, 세속적인 편협적인 해석, 복음은 곧 세상의 차별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기독교적인 사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안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bfccusa@yahoo.com / www.lbfcc.com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30 주일 할 고: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결혼이혼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714) 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ethelhc.org / www.bhc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세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평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s.org / worldmissionchurch0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공부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 (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밖 신자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7:30(월-토), 8:00(토) 온라인예배: 24시간 온/오프</p> <p>Tel: (714) 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망회: 오후 7:20(토)</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수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 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동요문성(주말):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새벽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s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발원인장로교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We are One Family)

가족들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들은 이해하고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것을 그리워하는 지 모릅니다. 함께 몸을 부딪치며 살았던 날들의 부모 형제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무엇이며 영적인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 한 피를 받은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엡 2:13) 가족은 한 주택에 삽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한 핏줄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 식탁에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 6:4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식탁에 앉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동고동락하며 삽니다. 가족은 사고고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굶고 같이 헐벗기도 합니다. 가족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며 사고고락을 같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며 한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에 휴가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모함하고 조롱했습니다. (마 12:24)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수준

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미쳐서 저런 짓을 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진짜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증오하는 바리새인의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가족 망신 그만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바로

길에서 가족을 등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오정모 사모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족의 사랑과 정을 초월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정을 초월해서 신앙의 길을 간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미 그런 아픔을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족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마12:47,48) 물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공동체(Spiritual Community)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의 정을 초월하는 영적 신앙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창 22:10) 아브라함은 그 일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창 12:1)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은 감옥에서 돌아온 남편 주기철 목사님에게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감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아버지 기도 제목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였습니다. 후에 주기철 목사님도 가족의 품으로 갈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갈림

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A Family that Does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하나님의 새 가족입니다. (마 12:50) 영적인 새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의 개방성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눅 8:21)라는 철저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므로 하나님께로 부터 다시 난 자들입니다. 신분과 혈통 국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1) 달래듯 단호하게 (sweet and strict)

대부분의 단체는 전화기를 이용한 전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손쉽고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쉬움도 있고 때론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남성 중에 갑자기 혼자되어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싱글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밀리다시피 혼자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성장 이후의 황혼이혼인 만큼, 성장기의 자녀를 가진 젊은 싱글 어머니들과는 달리 자녀 교육에 관련된 문제나 경제적인 진통은 덜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타격은 다른 경우와 유사할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 먹을수록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남성은 여성스러워지고 여성들은 딱딱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은 미모를 소유한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아쉬운 마음과 함께 새롭게 직면하게 된 삶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뚜렷해 보였습니다. 기도원으로 찾아가 금식 기도도 하고 교회도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단체 대화방에 이른 아침부터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찬양곡과 설교 말씀 등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이 왜 이러실까?'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몇몇 여성분들이 '그분이 많이 힘든가 봐요' 말하면서 묵묵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조마조마하던 중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로 예민해진 한 남성분이 폭발하듯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모임에는 규칙도 없습니까? 적어도 시간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상의한 후 단톡방에 간단한 규칙을 올렸습니다. "주로 공지할 내용을 나누는데 쓰여야 하고, 올리는 시간에 대한 제한과 함께 각자 선호하는 말씀이나 찬양 곡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나누고 싶은 찬양곡이나 말씀 외에는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습니다.

가족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요사이 어떻게 지내는지?', 일하는 건 어떤가?' 등으로 말문을 열고 영상을 보내는 것에 대해 자제를 부탁했다라면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하고 싶은 만큼 얘기를 나눴을 텐데 요사이는 늦게 왔다가 식사도 못하고 일찍 자리를 뜨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형통케 하시려고 삶의 지침이 되는 십계명(출애굽기 20장)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나아가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경계선을 마련하여 주신 겁니다. 한 부모 모임인도자들께서는 참가자들 간에 정확한 지침을 정해줄 때 오히려 자유롭고 풍성한 모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의 인간의 일생을 표현하는 말인 듯합니다. 기독교인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교회의 품 안에서 떠나 천국 환송

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시게 해야 하고 주님의 몸 된 소중한 교회를 늘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교회가 더욱 잘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최근 제계 종종 카톡을 보내어 주는 목사님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험담이나 약점을 들춰내는 일을 합니다. 어느 교회의 문제를 하나 발견하면 끈덕지게 그 문제를 부각하여 동네방네 떠들며 대는 일을 합니다. 교계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

닌가 싶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길을 막으며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릇 된 자기 확신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합이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이때다 하여 아버지의 수치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습니. 그러나 셈과 야벳은 자기 옷을 벗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몸을 덮어 드려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참으로 아버지 노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함의 길을 가지 않고 셈과 야벳의 길을 가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즉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거짓 어머니에게 아들을 넘겨주려 하였습니.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같은 지상의 교회는 모두 베들레헴 야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불안정한 교회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소중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몰트만의 말처럼 비록 교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성령의 돌보심이 절대로 필요한 연약하고 불안정한 교회임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비판 하는 그 사람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비판받는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물론 비판 받을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를 정죄하고 지도자들을 흠집 내는 일을 겁 없이 자행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바라신다고 믿는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도 중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yd777@hotmail.com



주성철 목사의 신간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성철 목사 신간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반성경적 악법을 경계하는 책”

태평양법률협회 한인 디렉터 주성철 목사의 신간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출판기념회가 7월 29일(월) 오전 10시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에서 열렸다. 주성철 목사는 “태평양법률협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방송출연과 칼럼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며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한인 이민교회 목회자, 성도와 교회들이 알아야 한다”며 “이 책의 목적은 미국에 있는 현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조목 조목마다 케이스가 수록되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사례를 보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 찬양인도로 시작 된 정찬균 목사 기도에 이어 최순환 목사(뉴치치), 강연재 변호사, 이성희 박사(캘리포니아신교대학)가 서평했다. 최순환 목사는 “주 목사님의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이라는 책은 최근 10년간 미국 내 이슈 되었던 동성애 관련 케이스를 모은 책이고 보수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이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성경적 악법을 경계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반성경적 사건들이 수면위로 등장할 때 수비적 수동적으로 방관적으로 대응하던 기독교의 근간까지 손상될 것이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각으로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첫째 이 책은 미국에 있는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봐야 한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간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 법률까지 미국의 모습은 한국에 영향을 준다. 미국의 동성애와 관련되어 이 책은

한국에도 동성애가 어떤식으로 침입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교본이 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이고 현실적 사례를 언급했다.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유익하다. 세 번째는 실제 사례 외에 대안이 마련되어있다. 이 책에서는 적극적으로 태평양법률협회의 도움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책의 출판을 시작으로 동참하고 행동하겠다는 한인들이 모이고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미국주류사회에까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박사는 “이 책은 현시대에 적절한 책”이라며 “첫째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다. 동성애와 관련된 각종 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동성애 문제는 우리 주변과 사역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현역 목사님들 서명 운동에 많이 참여했지만, 직접적 영향이 없어 별관심이 없었는데 아이들의 친구가 동성애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동성애 문제는 복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극적 대처방법이 많이 제시되어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용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보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바울의 설명이다. 우리가 입양된 것은 예수님이 “피”(7절)를 흘림으로 “구속”을 이룬 하나의 구출 작전이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7-8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10절).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은 “창조주의 행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되어” “자비로운 마음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갖는 “새 사람”을 입는다(골 3:10, 12). 구원은 신자들의 마음에 평안과 사랑과 감사를 낳는다(14-15절, 엡 2:17, 5:2).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다(골 1:13). 복음 진리가 넘쳐나는 풍부한 말씀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바울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엡 6:4),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골 3:21)라고 말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격분시키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의 양육이 반영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신의 필요와 소망, 성취가 최우선이다.

아이들이 불순종하거나 위험한 일을 했을 때 나오는 부모의 주된 반응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민이라면, 그런 부모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으뜸”(골 1:18)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자녀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끌어내려는 부모는 이미 은혜에 관한 복음 이야기를 권리에 대한 세계관으로 대체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현실은 그리스도인 부모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최고(골 1:18)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분위기를 격양시키지 않고도 자녀와 생산적인 대화와 “진실한” 교체(벧전 1:22)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복음 진리에 폭 잡긴 대화는 평화를 촉진한다(3:15). 그러나 권리를 따지는 대화는 혼란과 분노, 낙담을 초래할 뿐이다.

3. 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화를 내어 아이들이 들먹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하다면 자녀를 향한 의로운 분노라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엡 4:26). 분노는 거의 대부분 부적절한 권리 의식 또는 존중에 대한 교만한 요구에서 비롯한다. 나는 자녀에게 칼을 겨누고, 물건을 던지고, 벽에 밀치고, 말로 위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건 단지 짜증 나는 행동이 아니다. 그건 학대이다. 하지만 폭력적 수단 외에도 절대로 정상적인 분노 표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거칠게 말하기, 소리 지르기, 경멸하는 얼굴로 쳐다보거나, 또 욕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평화와 하나 됨과 이해를 촉진하지 않는다. 그 모든 행동은 우리를 자녀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을 크게 낙담시킨다. 분노는 일시적으로 순종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경건한 안에서 자라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약 1:20).

2. 인간이 만든 법

자녀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부모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복종하도록 알려줄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내가 선호하는 것을 구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 체계의 기능적인 부분으로서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불공평할 때 아이는 일관되게 분노나 낙담으로 반응하는 일정 규칙이나 기대가 있는 경우, 부모는 과연 그 규칙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 자녀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될까? 아니면, 그 규칙 또는 기대를 만든 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애초에 부모가 원해서는 아닌가? 당신과 자녀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문제와 상황을 관통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특히 십대와 성인 자녀와 관련하여,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매주 얼마나 자주 전화나 문자를 보낼지, 손주를 어떻게 양육할지,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등에 대한 규칙을 오로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정할 경우에 자녀의 분노와 낙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규칙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불순종이나 무례함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은 자녀가 특정한 기준 때문에 낙담하거나 분노를 느낄 때조차도 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경청하도록 하는 자유함을 선물한다. 어린이, 십대 또는 성인 자녀의 좌절감을 일축하기 전에 부모는 자신의 기대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대가 자녀의 나이에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 자녀를 노엽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의 분노와 낙담이 모두 부모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상한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 6:4과 골로새서 3:21은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방식의 자녀 양육을 권고한다. 자녀가 집에서 같이 살든 이미 독립했든, 복음은 부모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녀의 피드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분노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품위와 존중으로 그들을 대하도록 한다. 그러한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목회자나 중재자 또는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당신의 행동 때문에 자녀가 화를 내기 낙담했다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롬 12:18). 진심으로 사과하는 경우에 앞으로 자녀에게 휘둘리게 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을 보면서 당신은 놀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진실한 책임을 추궁할 때, 자녀는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건강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 생활이 만들어 내는 현실이다. 분노와 낙담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감사에 바탕을 둔 진실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by Hannah Carmichael, TGC

자녀를 노엽게 하는 세 가지

부모라면 자녀가 화를 내거나 낙담한 것처럼 보일 때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이 행여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및 성인 자녀와 나는 수년간의 상담 결과 나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양육 행동을 발견했다.

1. 죄책감 자극하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고 싶을 때, 종종 쓰는 방법이 죄책감 자극이다. 이는 잠재적인 위협이나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종종 내게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라. “너, 나를 전혀 신경 안 쓴 거야?”, “내가 널 도와주지 않으면, 네 인생은 엉망이 될 거야.”, “널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그 보답이니?”, “내가 너 나이였을 때 나는 이미...”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옳은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사랑과 온유함으로 인도하게 만든다. 자녀가 창의적이 되도록 이끈다. 그러나 죄책감을 자극하는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림 11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정현섭 담임목사, 샘 윤 목사, 김선희 감리사, 조종애 선교사, 팔개노 감독

오클랜드 창립110주년 감사 예배

“앞으로 100년, 열방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되길”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정현섭 목사) 창립110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21일(주일) 목회자와 교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예배는 베이징방 김선희 감리사의 환영인사와 김규현 목사(버클리 열린교회)의 대표기도로 시작이 되었으며 김선희 감리사와 정현섭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선희 감리사는 “오클랜드교회가 110주년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하

며 굳건한 믿음으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겨온 오클랜드 교회가 앞으로 100년은 전 세계(열방)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으며 정현섭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라면서 “앞으로 지역과 교회, 민족과 열방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의 미네르바 팔개노 감독은 골로새서 3장12-17절을 본문

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전 교인이 쓴 구약 필사성경봉 헌식을 오금희 장로 인도로 봉헌하는 예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는 한인회 목사(북가주 한인코코스 회장) 집례로 명예장로 9명을 세우는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식은 문답과 축복 기도, 취임 공포, 임직패 전달 등으로 진행이 됐다. 이어 김광진 목사(12대 담임)가 축사했으며 김현일 목사(14대 담임)가 권면했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에 나선 황원규 장로는 “자격이 없는데 장로가 됐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0년(1970-1975년 등록) 이상 출석 교인 22명과 40년 이상 출석 교인 20명을 축하하며 선물을 전달했으며 50년 이상 섬기기 교단을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한 조길호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창립110주년 감사 예배는 이성호 목사(신원중 앙UMC)의 축도로 마친 후 헌금 각처에서 온 교인들이 식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희년으로 자유하라(레 25:10)'라는 주제로 김홍양 목사(제주제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8월 23일(금)부터 8월 25일(주일) 금, 토 오후 7시30분, 주일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에서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개최한다. 동시간에 "The Truth will set you free. (John 8:32)" 주제로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를 연다.

▲ 문의: 718-279-1414

디딤돌아카데미, 이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미나 디딤돌아카데미(대표원장 양준길 목사)는 '창의적 목회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8월 15일(목) 오후 6시 50분 필그림선교교회에서 개최한다. 오후 6시에 식사가 준비되며 등록비는 없다. 문자로 교회명칭과 참석인원을 보내주면 된다.

▲ 문의: 201-739-7733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인터십 수료식 및 장학금 수여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회장 장영란)는 8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 밀러도서관에서 2024 여름 인터십 수료식 및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 문의: 443-996-9171

뉴욕효신장로교회, 2024 한 여름 밤의 꿈

뉴욕효신장로교회(김광선 목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은혜의 바깥스 제 2회 한여름 밤의 꿈이 8월 12일(월)부터 8월 16일(금) 오후 8시 분당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문의: 718-321-1787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등록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는 2024-2025년 학기 한국학교 등록을 받는다. 등록은 8월 16일까지 구글폼 또는 예배당 앞에 마련된 신청서에 등록하면 된다. 1학기는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2학기는 내년 1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이며 등록학년은 Kinder부터 12학년까지이다.

▲ 문의: 김성희, 한은경 집사 508-435-4579



뉴욕세광교회, 부흥사경회 노진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세광교회, 부흥사경회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고난의 길 가겠다는 고백과 헌신 필요"

뉴욕세광교회(담임 이민영 목사)는 '제자들(Disciples)'이라는 주제로 7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노진준 목사(PCM : Preaching Coaching Ministry 공동대표)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사경회를 개최했다. '다니엘(단 6:10-16)' '도마(요 11:11-16)' '베드로(요 18:15-18:25-27)' '바울(엡 3:1-9)' 각각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민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8일(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김중환 장로 기도, 세광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노진준 목사가 '제자들: 바울(엡 3: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노진준 목사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군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가 되어 간히 자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상승하

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감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며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일군으로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일군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넘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고백과 헌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민영 목사의 광고와 인사 후 노진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영상취재 흥현숙 기자)



뉴저지갈보리교회, 말씀나눔축제 김기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저지갈보리교회, 말씀나눔축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뉴저지갈보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는 7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하여 말씀나눔축제를 개최했다.

문정웅 목사 사회로 시작된 28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이창호 장로 기도, 성경봉독 정유선 집사, 찬양대의 찬양 후 김기석 목사가 '편협한 믿음을 넘어 (요사 4: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기석 목사는 "요나가 박멸할 하나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이 사라지자 화가 나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이 박멸할 하나를 아꼈는데, 내가 이 큰 성읍, 앞뒤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시며, 좁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끝없이 교훈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세상을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말씀선포 후 파송찬송 "나를 통하여"를 부른 후 김기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영상취재 흥현숙 기자)



'치유상담 사이버 아카데미' 개교

"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될 것"

'치유상담 사이버 아카데미(대표 김중호)'가 9월 3일(화)에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에는 CTS 뉴욕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대기 교수 공개강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 감동과 회복의 기회를 가졌다. 공개강좌를 계기로 한국 교육부가 승인하는 '치유상담 사이버 아카데미'의 정규 과정을 미주사회에서도 시작하게 됐다.

총 4학기 과정으로 1학기당 4개월이며, 각자 가능한 시간에 부담 없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담 전문학교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명예총장 정대기 교수)에서 검증된 교수진의 커리큘럼을 받아 학기당 5과목을 이수한다. 원하는 학생은 격주로 그룹 치유 만남을 대면으로 가질 예정이다. 입학자격은 상처를 치유 받고 싶거나, 상담 치유자가 되길 원하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상담가 양성 및 상담교육을 준비하는 교회나 기관에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전했다.

총 4학기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한국치유상담협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

조건이 주어지며, 이를 발판으로 사회와 교회에서 상담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최고의 특전은 한국 교수진이 뉴욕/뉴저지에 와서 진행할 '영성치유수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학교측은 "사이버 치유상담 아카데미를 개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들로 가정과 사회가 아파하기 때문이며, 그에 맞는 동포사회의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검증된 교과과정과 영성훈련으로 한 사람이라도 치유받고 행복한 치유자를 길러내기 위해 개교했다."

김대호 목사(산돌교회)는 "각처에 만연한 불안, 우울, 불면, 중독, 부부 및 자녀 문제 등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치유상담 사이버 아카데미는 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는 "치유상담 사이버 아카데미는 상처에 날개를 달아 비상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추천했다.

수강신청 및 문의: 지부장 박진숙 준목 jsphappy@gmail.com, 718-309-6927, www.chci.co.kr

(정리: 김재상 기자)



학교 체육관에서 설립감사예배가 열렸다

기독교 사립학교 OCA, 설립감사예배 및 후원음악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 사립학교인 '원 크리스천 아카데미'(이사장 육민호 목사) 설립감사예배 및 후원음악회가 7월 25일(목) 오후 6시 뉴저지 한인타운 중심에서 북쪽 20분 거리에 있는 노스베일(Northvale) 소재 학교에서 열렸다.

이사장 육민호 목사는 "OCA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환경을 조성하여 하나

님의 기대를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교직원들은 날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초연결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함 속의 자신의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기도와 후원 부탁했다.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설립감사예배 1부는 사회 홍인석 목사(가나안하늘문교회), 기도 김태수 목사(세기총 미동북부), 설교 김영민 목사(예장 국제연합총회, UPCA 총회장), 축도 황의춘 목사(UPCA 전 총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예식은 권기현 목사(드림교회)의 사회로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는 방지각 목사(효신교회 원로목사),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김영길 장로(AKUS 한미연합회 총회장), 김동권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아드리안 이(뉴저지한인회장), Brian K. Perkins 박사(폴롭비아대학교 디렉터), 김득해 박사(국제복음신학교 총장), 전기현 장로(세기총 대표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전기현 대표회장은 OCA 이사장 육민호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D)

- 1(목) 오후 9:29특별기도대(1조~5조) 세종평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를 위한 특별기도회 (강사 부원장 이성자 사모)
- 2(금) 오전 사랑밭 TV(이사장 권태일 목사) Interview Recording
- 3(토) 오전 서울 열린교회(최선대 목사) 010-3298-8023
- 5(월) 오후 NYSKC 한국교주성회 주최 : NYSK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한국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뉴욕),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LA))
- 5(월)~7(수) 천안 성화산기도원(원장 노베드로 목사) 010-8234-0690
- 8(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 여름산성축복대성회(원장 피종진 목사)
- 9(금) 오후, 저녁 고양시 한빛교회(김선일 목사) 010-4737-0691
- 12(월)~13(화) 대구 글로벌 강은숙 신유재단(원장 강은숙 목사)
- 14(수) 오후 신대방 국제문화예술포럼(정임영 목사)
- 15(목) 오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주최 : 나라사랑기도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010-2658-9006
- 15(목) 오전 서울 강남평온교회(황의일 목사) 010-9260-1091
- 주최 : 지선협 광복절예배
- 15(목)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관영 목사) 010-2391-3004
- 16(금) 오후 한국기독교연회(세계기독교교육신문방송TV)
- 16(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랑 목사) 010-8331-3431, 010-5603-4997
- 18(주) 오후 서울 사랑밭 7천기도클럽(이사장 권태일 목사) TV Interview Recording
- 19(월) 오전 서울 사랑밭선교회(권태일 목사) 010-5901-1277
- 19(월) 오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
- 19(월)~20(화)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 21(수) 낮 저녁 영덕 등대교회(이사라 목사) 010-2531-1564
- 주최 : 글로벌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 22(목)~23(금) 의정부 호렙산(도원)원장 박호식 목사, 총무 조광일 목사) 010-3129-1114
- 24(토) 오후 논산훈련소 3천원 진중세례성회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유성교 장로) 010-5265-1501
- 2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 26(월)~30(금) Visiting International Mission Fields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07(개포동) Fax. 02)401-7770

해외기독교문학협회 2024 해변제

"7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해외기독교문학협회(회장 윤세웅 목사)는 7월 27일 (토) 존슨 비치에서 여름 해변 정기모임을 가졌다. 문학협회는 매년 여름이면 뉴욕 롱아일랜드 해변을 찾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매년 주제를 바꾸어 백일장을 가지며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드러진 예배는 직전 회장 이조연 권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설교는 회장 윤세웅 목

사가 시편 19편 말씀으로 전했다. 안경순 목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특송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손영구 목사는 축도로 앞서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인도하며 함께 불렀다. 조지훈 시인의 장남 조광열 수필가가 심사하는 가운데 "사람"이라는 시제로 백일장을 진행했다. 장원은 김수자 수필가, 우수상은 이귀자 시인, 장려상은 김정식 목사에게 돌아갔다.

해외기독교문학협회 회원 김수자 수필가와 김정식 목사는 부부이다. 김수자 수필가는 성경 필사를 9번이나 한 글쓰기의 원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해외기독교문학협회는 정기모임과 함께 여름 해변제와 가을 단풍제를 열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책을 발간하며 또 시인이거나 수필가로 한국문단에 추천하여 등단을 하기도 한다.

(정리: 김재상 기자)



해외기독교문학협회 정기모임 중 기념촬영을 했다

KCBMC 서부총연합회 장학금 수여식

“청년캠프로 차세대 리더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할 것”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KCBMC) 서부총연합회(총회장 강승태)가 주최한 차세대 청년리더를 위한 제3회 장학금 수여식이 7월27일(토) 오전 11시 예술포니소리학교에서 열려 12명의 청년들에게 1000달러의 장학금을 각각 수여했다. 황선철 장학위원장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자리가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재단으로 크기를 기도하고 있다. 5년 전 서부총연이 발족된 후 처음으로 만든 활동이 차세대 청년 리더를 위한 장학금수여식이다. 현재까지 4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본 장학재단이 501C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청년캠프도 만들어 차세대 리더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태 총회장은 “제3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한다. 나무는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KCBMC를 통해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최원조 학생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다. 그곳에서 학비를 못내 학업을 쉬어야 할 때도 있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며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은 정말 귀한 일이다. 이번에 받은 장학금이 큰힘과 격려가 된다. 그리고 미래에 저도 후배들 돕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혜나 총무(남가주연합회/부예나팍 지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윤우경 권사(방송인/가든그로브 부지회장)가 기도했으며 안신기 목사(본회 지도목사)가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창 12: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장학금 수여식은 황선철 서부총연 직전회장(장학위원장)이 인사말씀을 전한 뒤,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어 강승태 미주총연 회장, 수잔 정 박사(연세대 남가주동문회장)가 격려사, 이봉우 회장(남가주연합회장)과 노상일 회장(OC한인상공회의소 전회장)이 축사, 에스더 황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김영대 목사(연목회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대흥장로교회 여름특별세미나에서 이재학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흥장로교회 여름특별세미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는 ‘슬기로운 청지기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름특별세미나를 7월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이재학 목사(디모데 성경연구원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흥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정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28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한창모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재학 목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감시다(벧전 4:7-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재학 목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인양 사용하며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지기 직에는 재물, 시간, 그리고 물질 등이 있으며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세우며 책임을 가진 관

리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신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사랑이며 두 번째는 연합이다. 사랑은 연합하게 한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그들을 대접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 청지기”라며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른다. 순간순간 충실하게 선한 청지기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선포에 이어 파송찬양을 부른 뒤 이재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CS 제16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전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CS 제16회 정기연주회

푸치니 서거 100주년 & 한국가곡 100주년 기념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 싱어즈(LACS 단장 문혜원) 제16회 정기연주회가 ‘음악에 흘러온 시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7월 27일(토) 오후 7시 라카나다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김철이 고문은 “지난 2005년 첫선을 보인 LACS가 2024년 제16회 정기연주회를 갖게 되었다”라며 “찬양하는 자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오늘 연주회를 찾아주시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이 되는 멋진 연주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푸치니 서거 100주년과 한국가곡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렸다. LACS

고문 김철이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정기연주회는 소프라노 김미진, 김소현, 박은미, 양유진, 문혜원, 크리스틴 오, 크리스틴 정, 테너 오정록, 심요셉, 오위영, 최원현, 바리톤 권상욱, 김정호, 베이스 류정상 등 성악가들과 피아노 남현선, 윤경미, 첼로 박수정, 바이올린 박희선 등이 출연하여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에서 ‘나 홀로 길을 걸을 때면’, 나비무인에서 ‘안녕, 꽃피는 사랑의 집이여’ 등과 한국 가곡 새타령, 잔향, 첫사랑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한여름 성령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한여름 성령집회를 ‘사명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들(마 6:25-34)’이라는 주제로 8월 8일(목)부터 11일(주일)까지 조지훈 목사(조이플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찬양사역자 레베카 황(터키선교사)과 조나단 조 목사(뉴웨이교회 담임)가 함께 하며 일정은 8일(목) 오후 7시, 9일(금) 오전 5시30분, 오후 7시 30분, 10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11일(주일) 오전 7시20분, 9시10분, 11시20분, 오후 2시이다.

▲ 문의: (714)446-1000

나침반교회 행정담당 파트타임 사역자 청빙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행정담당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예배 음향 & 자막, △예배 유튜브 제작, 수정 & 편집, △주보제작, △포괄적 행정사역, △컴퓨터 사용 관련 작업이다. 자격조건은 신학교 목회학 석사(M.Div.) 졸업자 혹은 과정 수료자이다.

▲ 문의: 류경진 목사 (714)837-8717, nachimban@winsok.com

광복 제79주년 8.15 기념 경축음악회

광복 제79주년 8.15 기념 경축음악회가 8월10일(토) 오후 3시 남가주세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솔로몬대학(학장 에스더 백 박사) 주최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희우, 이영주, 김숙영, 테너 오위영, 오정록, 바리톤 장상근, 경신코랄(지휘 장진영), 에버그린과이어(지휘 노해숙), 바이올린 황여주, 피아노 윤경미 등이 출연한다.

▲ 문의: (323)708-9191, (213)381-7755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에서 조유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제3차 차세대 목회자 21일 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

“참된 자유,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고 아버지만이 줄 수 있어”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주최한 제3차 차세대 목회자 21일 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가 지난 7월22일부터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그리스도인이여 탄식하여 울어라(겔 9:4)’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7월27일(토) 오전 6시에 열린 여섯 번째 기도회는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의 찬양인도와 이창남 목사(OC교협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돼, 신영세 장로(OC장로협회 부이사장)가 대표기도 했으며 조유진 목사(플러턴영락교회)가 ‘슬퍼하시는 아버지(눅 15:1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유진 목사는 “본문은 탕자의 비유이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닌 슬퍼하시는 모습”이라며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이유는 삼척째 참된 자유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 이유는 자유롭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자유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순간 자유는 불행이 된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참된 자유는 아버지께만 있으며 아버지만 줄 수 있다. 삼척째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다. 탕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아버지를 이해했다. 그래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마음아파 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삼척째 처해진 아들의 상황 때문이다. 아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상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은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김기동 목사(OC교협 중영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기도회는 8월14일까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리며 15일에는 은혜한인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로 모인다.

(박준호 기자)



KCBMC 서부총연합회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이영성 담임목사(사진 오른쪽)와 박성환 부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담임목사 취임예배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진양지가 되길”

월서연합감리교회는 이영성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7월28일(주일) 오후 12시에 거행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영성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박경 장로 대표기도, 성가대 특송, 김웅민 목사의 ‘은혜로 소문난 교회(살전 1:6-8)’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웅민 목사는 “은혜 있는 교회는 첫째 목회자가 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둘째로,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은혜 있는 성도들은 언어의 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대와 용납이 있으며 지도자

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서연합감리교회가 세상에 소문난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취임한 이영성 목사와 박성환 부목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 지기를 바라며 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주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성 담임목사, 박성환 부목사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성 목사는 “환대와 기도로 후원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월서교회가 LA를 변화시키고 잠자는 미국을 영적으로 깨우고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진양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영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밀알, 장애인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디즈니랜드 방문, 평생 기억에 남을 시간’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지난 7월 22일(월) ‘Brian & Iris Na Foundation’의 후원으로 밀알 토요 사랑의 교실과 ANC 은누리교회 GM에 소속된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 스텝 등 총 165명이 모여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

로 마련된 행사였다. 오전 10시 모든 참가자들이 디즈니랜드 정문 앞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은 후 사랑의교실 브랜드 별로 소그룹을 형성해 California Adventure, Fantasy Land 등을 다니며 Disney Parade를 비롯한 여러 재미난 광경을 보고 놀이기구들을 타며 유쾌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비록 날씨는 덥고 오래 줄을 서며 기다렸지만, 스텝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쌓

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Brian & Iris Na Foundation’에서 기금을 후원해 주셨고, Brian & Iris Na의 딸 Ellie Na 자매는 gofundme를 개설해 편

드레이징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CBB, US Metro Bank, 한미은행에서도 후원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BRIAN & IRIS NA FOUNDATION + Milal Mission



전 세계 청소년들 한자리에... '세계렘넌트대회' 막 올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주제로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주최하는 기독교청소년들의 축제인 '제27차 2024 세계렘넌트대회'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열린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만7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외 70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 둘째날인 31일부터 찬양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참가한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포럼을 진행하고 유아유치, 어린이 등 계층별로 나뉜 모임과 특강도 한다. 분야별 멘토링 모임도 진행된다.

뒤이어 감사와 결단을 주제로 한 찬양의 밤이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전도자의 고백 시간을 갖는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메시지, 찬송, 기도 시간 등을 통한 영성의 시간뿐만 아니라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유치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며 "부모들에게는 후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를 두고 교육하고 후대들이 알아야 할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특강도 진행된다"고 밝혔다.



JMS 피해자들, "교주 정명석 구속 만기로 풀려나선 절대 안 돼"

내달 22일 6차 공판 앞뒀, 정명석 같은 달 15일 구속 기간 만료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JMS 피해자 측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정씨의 항소심 여섯 번째 공판이 내달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애초 지난 25일 진행된 5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 추가 및 제출된 증거 검토를 이유로 결심 공판을 한차례 미뤘다. 이에 피해자 측은 그렇게 되면 다음 달 15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씨가 6차 공판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항소심을 2달씩 최대 3번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

을 지난 1월부터 이미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한국대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심 공판을 미루고, '구속 만기를 넘기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재판부는 정명석의 석방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명석의 도주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JMS 측은 피해자를 비롯한 변호인단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만 40건에 이른다.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 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정씨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씨가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케 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돌봄 대상 이해 없인 교회다운 역할 감당 못해"

저출산에 발벗고 나선 교단들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통계 수치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다.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떨어지면서 교회들에게도 발등의 불이 됐다. 교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세미나를 열고 주일학교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소방수로 나서고 있다. 1만 교회 규모의 대형 교단으로 부상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총회장 김진범 목사)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책임감있게 대응하고 있다. 예장백석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한규 목사)와 사회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 남세도 목사)는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삼교교회(담임 장현승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배국수 서정대 교수(사회복지상담과)는 조고령화와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과 교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한 나라가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인구 출산율은

1.5~1.6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약 0.6명에 불과하다"며 저출산 문제의 원인도 바로 취업난, 높은 주거비, 육아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그는 "가정과 결혼, 출산과 육아를 중요시하는 교회는 자녀 양육을 윤리적 책임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며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로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출산·양육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배 교수는 "교단 차원에서도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며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신앙 교육과 약자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세도 사회문제특별위원장은 "돌봄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수용 없이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번 세미나가 교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장백석은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저출산 관련 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추후 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단 설립자

겸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도 교단의 저출산 극복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기도 한 장목사는 회원 교단의 협력과 관심을 요청하며 교단별 저출생 대책위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지지 의사를 전했다. 장 목사는 "결혼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담긴 법을 만들어달라"며 "교회 공간을 아이 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작은교회 연합하니 영성도 '두배'

독자적 여름캠프 힘든 교회 위한 '청소년기름부음캠프 연합수련회'

청소년기름부음캠프 연합수련회가 열린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 양말을 빌린 청소년들이 객석을 가득 채운 채 찬양과 기도에 집중했다. 예배자들의 열기로 현장은 사뭇 뜨거웠다. 위아처치(서길원 목사)가 주최한 캠프는 전국 141개 지역교회에서 온 1200여명의 청소년들을 한데 모았다. 올해 14회째인 연합수련회는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들과 함께한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등 청소년 청년 캠프가 쉽지 않은 교회들을 위해 교파를 초월한 여름철 연합수련회가 잇따르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참가를 도



연극으로 성경 전해... 남녀노소 시선 사로잡는다

"보다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성경 접하게 도와"

성경 내용을 연극으로 전달하는 설교가 어린 아이 모두의 성경 이해를 돕는 사역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서울 서초구 대영교회(이순근 목사)는 영어성경캠프에서 연극을 통해 성경 레위기와 사사기 내용을 소개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다. 연극이 진행되는 30분 동안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성경 내용에 몰입했다. 27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 캠프는 연극을 통해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의 구약 내용을 밀도 있게 다뤘다. 구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빠르게 영어로 전달함에도 미취학 아동부터 영어가 어려운 아이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청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연극의 특성 때문이다. 가족 모두 무교이며 평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김지원(7)군은 "성경을 처음 접하지만 성경 내용을 연극으로 보여줘서 이해가 잘된다"며 "재밌다. 이번 성경캠프가 끝난 뒤에도 계속 교회에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예즈마이야 성경캠프는 지난 22일부터 4박 5일간 합숙으로 진행했던 예즈마이야 콘퍼런스의 실천 사역으로 2차에 걸쳐 총 14개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영어성경캠프 때부터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정아인(11)양은 지난해 영어성경캠프에서 연극으로 보여준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정양은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성경을

재밌게 접할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며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런 친구에게도 연극으로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 더 쉽게 교회에 올 것 같다"고 했다.

예즈마이야 영어성경캠프에 사용된 음악을 총괄하는 이배아(41) 음악 감독은 "연극은 시각 청각 맥락 등 3차원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여러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 재밌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드라마 형태뿐 아니라 게임 영화 등 여러 요소와 접목할 수 있어 세세별로 흥미있는 주제나 콘셉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오 영남신대(총장 유경대) 교수는 "연극이나 노래는 성경을 보다 친근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문화적 선교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한국교회가 문화선교에 대한 관심이 낮다. 문화를 통한 선교는 단시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연극과 같이 문화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키워내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소년 풋살대회, 정체된 교회학교에 활력

예장합동 내달 13일부터 이틀간 '총회장배 전국 유소년 풋살 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교단에서 직접 다음세대 양육을 챙기고 있다. 교단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교단 신하 1만 1200여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운동본부·본부장 이성화 목사)는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예장합동 총회의 컨트를 타워다. 운동본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목회적 대안 제시부터 유소년 부흥을 위한 전국 풋살대회, 스피치대회, 토론패들, 스말로그(스마트+아날로그) 교사·부모대학, 메타버스가 기반 교재 연구까지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유소년 풋살대회는 정체된

교회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생들이 풋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교회학교에 등록하는 셈이다. 이성화 운동본부장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첫 대회에 참가했던 주일학교 중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지만 풋살 대회를 위해 선수단을 꾸렸고 이들이 지금까지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풋살을 통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주일학교 문턱을 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

회 총회장배 전국 유소년 풋살(축구)대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양일간 충북 수안보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다. 1·2학년, 3·4학년, 5학년, 6학년 등 4부로 나눠 진행되는 풋살대회에는 전국 35개 교회에서 70개 팀이 출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권역별 예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풋살 대회로 주일학교가 자리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인천 은광교회(유해남 목사)는 지난해 1회 풋살 대회 때 교회 주변 풋살장가를 돌며 대회를 홍보했다. 이를 통해 7명의 초등학교생이 풋살대회에 출전했고 이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양평 미리내캠프에서 '총회 어린이 영어비전캠프'를 연다. 총회 학생지도부(부장 양병국 목사)도 29~31일, 다음 달 1~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폴링(소명)'을 주제로 경기도 용인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각각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한다.



에서 운영되는 연합수련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홍 목사와 함께 온 미자립교회는 7곳이고 작년의 경우는 15곳이 함께했다.

작은 교회를 위해 참가비를 대폭 할인하거나 전액 지원하는 캠프도 있다. 교회교육선교회(김성환 목사)가 주최한 어린이 연합수련회 만원캠프는 '참가비 1인 1만원'과 '일일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캠프를 연다. 총 250개 교회가 참여하는 올해는 서울 인천 대구에서 캠프를 마쳤고, 다

음 달 3일엔 대전 10일엔 경기도 의정부에서 캠프가 열린다. 다음세대를 위한 '더게이트캠프'는 지난 29일부터 사흘 일정한 대전 산성침례교회(방영규 목사)에서 열리고 있다. 캠프엔 출석 성도 30명 미만인 작은 교회는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방영규 목사는 "더게이트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음세대를 인도하는 캠프"라며 "한국교회가 다음세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욱 어려운 상황인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24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승리의 면류관

인류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제 1회 대회는 1896년 4/ 6-15일 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다. 그 이후 벌써 33회째가 되었다. 금 년 대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7/ 26 ~ 8/11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된다. 참가국은 206개 나라이다. 출전선수는 329개 종목에 10,714명이다. 슬로건은 "함께 나누자(Made for Sharing)"이다. 프랑스로서는 19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다시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수많은 경기 중 올

어쩌면 한평생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림

승리의 첫째 비결은 먼저 준비 단계에 있다. 모퉁지기 운동선수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선수가 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채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선수가 우승 경

야 두어야 한다(마6:19-21).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이며 정신분석학 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소 유나 존재냐? (To Have or To Be?)를 언급했다. 그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소유에 늘림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유하는 삶보다 존재를 중시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하나 "얽매이지 쉬운 죄"란 무엇인가? 이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 신앙의 요

아무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를 위해서는 나무를 전지하듯 인생 달음질에서 방해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행복의 첩경이다.

2.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함

승리의 둘째 비결은 경주시 그 태도에 달려 있다. 오직 일념으로 몸과 마음이 집중해야 한다. 잡다한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잘 달릴 수 없다. 육체는 마음의 영향을 받고 마음 또한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보다 매사에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택함을 받은 열두 제자들이 그러했다. 또한, 달리기 경주 상에 있는 선수는 인내해야 한다. 처음 출발 선상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모두가 1등 할 것 같다. 눈빛이 빛나고 소망이 있다. 허나 경주 휘슬이 울리고 나면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

휘포모네)"는 맞닥뜨리게 된 시련 앞에 그저 체념하며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곤란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계적이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3.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

승리의 셋째 비결은 지나거나 목표물을 직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넓은 운동장에서 퓌대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걸어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마련이다. 이로서 42.195 Km를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는 항상 그 끝인점을 생각하며 힘의 안배 가운데 달린다. 인생의 근본적 퓌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하루 일과 속에서도 때로는 일 속에 파묻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곤 한다. 그러면 그 하루가 무질서하고 성취도

가치를 두며 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약이 내포되어 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치욕적인 장애물도 피하지 않으시고 내 가운데 결국 부활이라는 결승점에 다다르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로써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주목하며 발자취를 쫓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맺음말

지금 파리 올림픽 열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금빛 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패한 선수들은 설 자리가 없다. 찬밥 신세가 된다. 아무런 보상도 없다. 경쟁 사회는 냉엄하다. 승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요, 패자는 질타를 받기 일쑤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달을 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만의 뭔가 승리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승리라

운동선수이든 인생이든 우리 모두는 승리를 갈망한다.
승리는 준비된 자가 인내 속에서 퓌대를 향해 달려갈 때 일어난다.
선교사역도 소명과 은사를 따라 목표를 향해 집중할 때 열매가 있다.

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이 있다. 바로 마라톤(Marathon)이다. 이는 육상 경기의 한 종목으로, 42.195Km (26마일 385야드)의 거리를 달리는 도로 경주이다. 마라톤은 인간의 극한 한계성을 시험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상을 받도록 달음질을 하라고(고전9:24-25) 권면한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라고 자신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히 12:1-2). 그렇다. 우리 인생도

쟁을 하려면 최대한 거주장스러운 것들을 벗어 던져야 한다. 대개 남자 선수들은 팬티만 입는다. 어떤 수영 선수는 공기과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머리털까지 뺏길기도 한다. 인생 레이스(Race)도 승리하기 위한 원리는 스포츠와 비슷하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짐, 방해물"을 의미한다. 현대인은 탐욕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물질,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냉장고, 옷장, 거라지 안을 보라. 적어도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한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Donation)하는 것이 좋다. 보물을 움켜쥐기보다 하늘에 쌓

소를 말한다. 이를테면 이리저리 얽힌 인간관계, 나쁜 중독성 습관, 세상 유혹,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한 여러 악성 요소들이다. 인생은 다 때가 있다. 더할 때와 뺏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중년이 되기까지는 더하기 위해 힘쓴다. 지식, 재물, 권력, 명예, 인간관계 등이다. 그러나 60대 장년부터는 빼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 경쾌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자기 소유물을 생전에 스스로 처리하면 지혜로운 자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가 죽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의해 처리되면 어리석은 자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된다. 많은 이들이 중도에 포기한다. 비록 달린다 해도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다. 한마디로 인내의 싸움이다.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인내를 잘 못 한다. 인내를 가장 잘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인내하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원수 같은 죄인들을 확 끌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침묵하였음이어"(이사야 53:7) 끝까지 인내하셨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4). 본문에 등장한 "인내

가 낫다. 만일 우리가 나아 갈 목표점을 똑바로 주시하면 그것은 우리를 곧은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의 중심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버그 그 자체가 우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서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시는 이"의 의미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길에 온전한 모범이 되신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바라보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르테스"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주목하자"란 뜻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곳에

는 결코 우연히 탄생하지 않는다. 인생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하므로 받는다. 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주하면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으며 주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간단하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와 닮이(Jehovah-nissi)!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3강 아비멜렉, 입다, 삼손 그리고 레위인 (3) (사사기 9-21장)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 때도(사 8:1-3) 입다의 전쟁 때도(사 12:1-6) 문제를 일으킨 '에브라임'과 그들이 머물던 '산지' 중심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호 6:4). 그러므로 사사기의 남은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는 그에게 오히려 복을 받고 그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집에두고 이미 신상이 있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미가는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장으로 삼습니다(사 17:1-5). 그러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레위인을 만난 미가는 그를 제사장장으로 삼고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사 17:13)고 합니다. 삶은 영만인데 모양만 갖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 17:6)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기업의 땅을 구하지 못한 단 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다가 정탐으로 보낸 자들이 미가의 집에서 유지 숙하게 되고 레위인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후 나중에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이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사 18:19)는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이미 미가의 호의로 그의 집 제사장이 될 때에도 만족해하던 레위인 제사장은(사 17:10,11) 마음이 기뻐 자기 것도 아닌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단 지파를 따릅니다(사 18:20). 사명이 없는 레위인은 더 좋은 것을 보니 이전 것을 버리고 더 좋아보이는 것을 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단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사 18:1)고 합니다.

다시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입니다(사 19:1). 이번에는 첩을 둔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을 두 돌아가서는 오지를 앉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서 처가집에 며칠을 머물다 마침내 그 첩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의 한 노인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사 19:21).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성음 불랑배들이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사 19:22). 노인은 이것은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므로 자기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사 19:23,24). 룯이 살던 소돔지역(창 19:1-11)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그 불량배들은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아주었는데 그 첩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사 19:25-28). 그러자 레위인이 그 시체를 그의 집에 가지고 가서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를 내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냅니다(사 19:29). 성경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사 19:1)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 전사 400,000명(사 20:17)과 베냐민 지파 26,000명이 기브아 주민 700명의 연합군(사 20:15)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사 20:18)라고 묻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사 20:18)고 하셨는데 연합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여 22,000명이 죽습니다(사 20:21).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사 20:23)라고 묻고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서 치라'(사 20:23)고 하셨는데 2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여 18,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시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반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사람이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사 20:26-

28). 아직 단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것과 함께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번째 전투에서는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사 20:28)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사 20:46-48). 베냐민 지파는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사용되었지만 그들도 악을 행했기에 그대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공평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 기브온 연합군의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사 21:1).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고 하며 반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사 21:2,3). 그리하여 '궁여지책'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에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을 얻고(사 21:4-13) 실로에 춤을 추러 온 여자들을 붙들어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아내를 삼게 합니다(사 21:14-23).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 레위인들이(민 18:20/ 신 10:9, 18:2)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 21:25)는 반복 구절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계획이지 이들이 노력과 헌신으로 가나안 땅을 맡고 그대로 '축복의 땅', '젓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분명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와 절박한 요구가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열심인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임마누엘의 복 (시 124:1-8) 찬283장

성도가 광풍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 때문입니다. 그 복은 어떤 것인가? 첫째, 그 분이 내 편이 되시는 복입니다. 시인은 4가지 영역의 부정적 그림으로 복을 강조합니다. 원수의 분노가 산채로 삼키는 환경, 물의 범람으로 영혼이 질식하는 환경, 시대가 영혼을 덮는 환경 그리고 홍수가 쓸어 간 후의 환경에서도 주가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분이 우리의 전인을 지키시는

복입니다.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게 사심을 찬양하며 우리 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났음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모두 보호받는 복입니다. 셋째, 그 분이 우리 모든 일의 근본 되신 복입니다. 창조자요 섭리 주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물려오는 어떤 광풍에서도 반드시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화 열매를 맺는 길 (시 126:1-6) 찬373장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는 때에 지은 본 시편은 죄로부터의 구원 혹은, 영적 문제에서의 해결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결실의 법칙이 무엇임을 잘 가르칩니다. 첫째, 진실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이란 진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씨란 모든 행동 즉, 순종의 기도와 봉사를 가리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모든 문제에서의 자유는 진실한 기도의 행동으로 해결됩니다. 둘째, 진실로 뿌리는 자에게 찾아온

결과는 온전한 결실입니다. 반드시 결실을 가져오는 수확을 강조했습니다. 정녕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포로를 돌이키고 기쁨 충만, 찬양 충만으로 꿈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서도 말씀을 따라 참되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주님이 결실을 주십니다. 영적 결실의 법칙을 따라갑시다.

수 주를 신뢰하는 복 (시 127:1-5) 찬456장

본문은 여호와 신뢰자가 받는 복의 중요성과 가정과 나라와 자녀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복의 근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면 어떤 난관에서도 복을 체험하지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먼저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둘째,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3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

째로 형통합니다. 나라, 가정, 개인의 일이 잘 됩니다. 둘째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기 "잠"이란 안식을 가리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고 그의 명에 맡겨야 안식이 찾아옵니다. (마 11: 38 - 39) 셋째로 가정이 잘됩니다. 4 - 5절에 보면 자녀가 힘있게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힘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목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자의 복 (시 128:1-8) 찬8장

여호와 경외 자란 도를 행하며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하나요? 첫째, 개인 수고에 복이 임합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이지만 노동은 복입니다. 수고 한 대로 먹는 것이 정상이나 수고했어도 먹지 못 하는 일이 생겨도 진실한 수고의 대가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삼림을 개척하여

기업을 얻으라고 한 것이 이것을 잘 증거합니다. (수17:18) 둘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한편으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한 것은 사랑과 덕을 가리킵니다. 현숙한 아내는 착하고 진실 된 인격을 소유합니다. 다른 편으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란 풍성과 소망을 가리킵니다.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는 이 시대에 이 복된 길을 가야합니다.

금 고난 속에서의 찬양 (시 129:1-8) 찬 457장

본문에서 성도는 어떤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그는 무슨 환난을 당했나요? 1 - 3 절에 보면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소시부터 반복해서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등에 발고랑을 내는 것 같은 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왜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

문입니다. 악인은 의의 심판을 받아 변성이 끊어지고 (4) 수치를 당하며(5) 열매가 사라져 (6-7)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가 됩니다.(8) 우리는 악인의 변성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의 정직한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장래의 축복을 내다보고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토 겸손한 영 (시 130:1-3) 찬 212장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은 인간 본래의 마음입니다. 첫째, 이것은 온유한 마음이라 합니다. 1절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 눈을 높이지 않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속 주의가 아니고 현실에 충실한 삶이며 섬기는 자로 사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비전은 온유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지 교만과

는 무관합니다. 둘째, 이것은 주만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 몇 뎡 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유일한 존 대상인 것처럼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상 주님이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회음악 이야기(62)



윤임상 목사
윌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본향을 향하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축제인 2024 하계 올림픽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축제의 서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에서 펼쳐진 한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보며 필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구성하여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자리에 왕관을 쓴 여성이 두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들어 서 있고 주위에는 드레그 퀸(Dreg Queen), 즉 여장을 한 남자들이 제자들의 자리에 앉고 서 있는 장면을 연출시켰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다양성을 포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퍼포먼스를 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슬로건을 하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여 잘못된 모습으로 비추는 것 같아 우리에게 큰 아쉬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 공연의 주인공인 공연예술가 필립 케서린(Philip Catherin)이 한 말입니다.

"솔직히 논란이 없었으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고 이 땅에 있다면 그건 또한 다른 파시즘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날 시대 정신의 한 면을 대변해 주고 있는 씩씩한 모습입니다. 일찍부터 그 시대의 사조를 선도해 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프랑스 민족은 중세 시대 이후 강하게 부각된 주 종 관계의 불평등한 봉건주의(Feudalism) 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18세기 후반 평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토론의 장으로 이끌며 살롱(Salon) 문화를 형성시키고 드디어 계몽주의(Enlightenment)의 서막을 이끌었던 민족입니다. 계몽사상의 주 슬로건 즉,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하고 그 어느 것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가져야 할 권리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 아름다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빛나가고 만 것 같습니다. 이 정신을 이제는 성분별에 빚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표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이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 가다 반드시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붙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6-8)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냥 들의 풀처럼 피어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생에 있어 영화 즉 부귀영화는 들에 잠시 피어 있다 죽어버리는 들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모든 조건이 부하여 자랑할 것도, 그렇다고 부귀영화 없다고 자괴감에 빠질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삶의 여정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

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순례의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작시자 김희보(1918-2002)가 쓴 글을 가지고 한국 교회음악의 선구자 김두완 작곡가(1926-2008)가 쓴 칸타타 "순교자"의 첫 번째 나오는 곡입니다. 이 칸타타 첫 페이지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복한 교회의 성직자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의 아버지 되시는 김치근 목사 이십니다. 평안남도 용강 출신으로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북한군으로부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김두완 작곡가는 아버지를 추모하며 인생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쓴 곡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곡을 바치기 위해 혼신을 다 해 작곡하였기 때문에, 더욱 훌륭한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순례의 여정을 밟고 있는 우리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확인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의 감정을 쉽게, 하지만 깊게 자극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의 크고 작은 교회의 성가대가 찬양하며 목이 메다 울먹이게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큰 도전과 혼란함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며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박스에 담아놓은 내 사상 내 생각을 기준으로 감히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판단하려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때 순간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큰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D. L 무디(Dwight Lyman Moody, q837-1899) 선생님이 그의 인생 말년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머잖아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요.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생생히 살아있게 될 것이요." 1945년 4월 어느 날 두 명의 호송병이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교수대에 데려가려고 오자 감방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나는 끝이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네" 우리도 이 순례자의 길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지내다 인생의 끝자락에 이 두 믿음의 거장들이 고백한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yoony@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편지

우간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왕하 6:16)"

학교 사무실 앞 작은 화분에 하얀 부추꽃이 피었습니다. 전에는 몰라왔던 작은 꽃들을 보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겸손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과 저희 모두가 어여쁜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3주간의 방학이 끝나고 두 번째 term을 시작하며 학생들을 맞을 준비로 학교 정문과 벽에 쌓인 먼지를 물로 씻어 내어 주변을 깨끗이 단장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돌아올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6월 3일은 국경일로 순교자의 날입니다. 전국각지에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를 포함하여 3~4 백만 명이 다녀가는 대단히 큰 종교행사입니다. 우리 학교는 행사가 열리는 성당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학교가 3일간 문을 닫는 것은 물론 올해는 150명의 경찰도 학교 운동장에 주둔하며 치안 활동을 벌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큰 기독교 행사를 매년 개최할지를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러한 기독교 국가에 곳곳의 부패와 열악한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우간다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목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단기선교팀과 의료봉사팀이 떠난 후 우기가 시작되어 시원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건기 중에 심한 먼지와 같은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학교 소식)

- 1) 2학기 장학금 전달 :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서 학생들의 성적에 자주 관심이 갑니다. 귀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녀뿐만 아니라 멋진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 2) 단기선교팀 방문 : 3년째 퀸즈한인교회 EM 팀과 처음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의료봉사팀(KPM, Kingdom Pioneer Mission)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도 2주 반 동안 함께 섬기느라 힘이 들었지만 멤버들이 이곳에 뿌

린 복음과 봉사 정신을 열매 맺게 하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EM 팀은 십계명을 주제로 말씀과 찬양, 게임과 공작시간을 통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귀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였습니다. 의료 팀은 3곳의 의료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 3) 학교 시설 보완 : 선교팀이 오면서 우선 10대의 랩탑을 가져와서 학생들이 더욱 새로운 환경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실에도 2박스의 책이 보충되고 테이블과 바닥 매트 등 점점 시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4) 책 발간 : 우리 학교만의 유익한 교재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학기에 초등학교 교재를 편집해서 5권을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학년별 전 과목을 잘 편집하여 출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교사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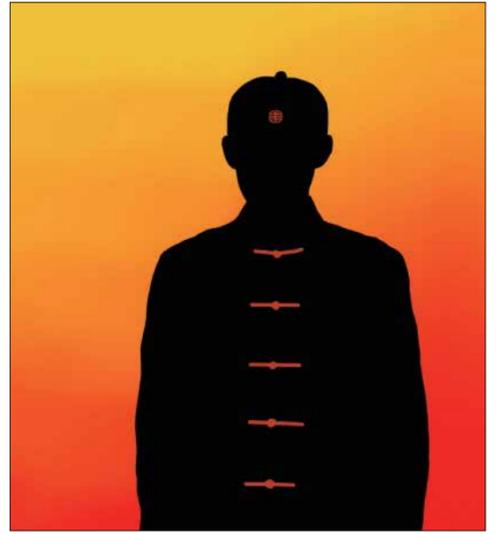
단기 선교팀이 떠난 후 저희는 꽤나 지쳤고 마음은 좀 서운합니다. 여러면에서 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 1.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 2. 6/20~7/6, 방문하셨던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19명의 P7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 4. 두 아들의 가정을 안보해주시길

우간다에서 안정근 & 정미향 선교사 올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남부 마산마오족

▲ 인구

약 1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5%, 무교 5%,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사천 년 전에 박해를 받아 남부로 이주해서 구이저우성 남부에 거주한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하나의 마오족으로 묶었으나, 고립되어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구별된 종족이다. 인근 소수 종족 중에 소수의 가톨릭 신자가 있지만 서로 거의 교류가 없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 기도제목

- 1. 고립된 남부 마산 마오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 2. 남부 마산 마오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 3. 이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얻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명국 내과전문의

냉방병을 예방하는 법

해마다 여름만 되면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층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생활이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법조인 한 분이 과거 여름휴가 중에 열에 이 카운티 법조인들과 함께 독일의 사법제도를 연구할 목적으로 2주간 독일을 다녀왔다. 독일에 다녀온 느낌을 물으니 대담은 날씨가 매우 덥지만, 관공서 어디를 가도

에어컨이 꺼져있고 실내온도가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고 한다. 또 식당을 가도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어컨 바람이 건강에 이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인들의 매우 실용적인 면을 엿보게 하는 단면이다. 실제로 여름철에 더위와 관련된 많은 질병들은 실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에어컨 필터의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더위로 인한 질환들을 보면 더운 날씨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우리 몸이 내부의 열을 발산해내지 못해서 생기는 열사병(heat stroke)과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땀을 많이 흘릴 때 땀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전해질의 소모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열탈진(heat exhaustion)이 있다.

우리가 냉방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더운 여름에 냉방 장치가 잘 되어있는 건물 내에서 조일 일을 할 경우에 두통이나 근육통, 목구멍이나 눈, 코 등이 따갑거나 쉽게 피곤하고 심하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 등의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상은 지나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해서 인체가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실내 공기 내에 각종 바이러스, 곰팡이(mold), 세균 등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순환됨으로 인해서 이에 장시간 실내에서 노출되어서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의학계에서는 이를 빌딩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 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밀폐된 건물 내 에어컨이나 히터의 필터나

냉각수등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을 총칭해서 부른다. 이 때문에 감염된 냉난방 시설 내의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의해서 가벼운 감기나 알러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레지오넬라와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세균에 의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더운 여름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실내외 온도 차이는 가급적이면 화씨 10도 이하로 유지하고 찬공기가 직접 와서 닿는 것은 피해야 한다. 땀이 난 상태에서 실내외 찬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웨터 등을 실내에 항상 준비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덥더라도 차가운 얼음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노인이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될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에어컨이 설치된 곳에서 더위를 피하도록 한다. 또 실내외 환기를 적당히 시켜주고 밤에 잘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는 것이 좋다.

▲문의:213-383-9388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 Midwest University

미드웨스트 대학교 국제 문화 예술 대학원

Location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Contact

art@midwest.edu (636) 327-4645 www.midwest.edu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창의력을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FA/DEA

Art Education

Arts Therapy

Ceramic Art

Ballet / Dance Performance

Design Art

Jewelry Design

Natural Lacquer Art

Painting Art

Photography

Sculpture Art

학점 학위 취득 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버려진 아이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중심 지인 적도 지역에서 수원이 시작되어 지중해의 삼각주까지 약 6,650km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장대한 강이다. 나일강은 산악지대와 호수와 늪지대를 횡단하면서 아프리카 북동부의 동물과 식물의 풍요로운 생명의 서식처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마침내 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주 지대를 형성한 후에 지중해로 유유히 흘러 들어간다. 나일강의 하류에는 강력한 이집트의 통치지대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의 하나이다.

어느 날, 나일강의 한적한 하수에 한 아이가 버려졌다.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종족을 말살하기 위한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가족에 의해서 버려진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버려진 아이는 억압당하는 약소민족의 슬픔과 함께 태어났다.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이 보호되기를 거부당하고 무참하게 강물에 버려져 죽기만을 기다리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은 버려진 존재

라"고 말했지만, 사람이 버려진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란 알맞은 것, 이 아이가 버려진 것과 거의 같은 시각에 한 여인이 그의 시녀들과 함께 하필이면 이 아이가 버려진 나일강 하수가에 목욕하러 나왔다. 버려진 아이는 여인에게 발견되었고, 순간 그녀는 여자만의 특유한 모성애에 따라서 버려진 아이를 가혹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는 극적으로 물에서 건져지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경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비참한 환경에서 버려진 한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시 건져진다는 생의 극적인 전환을 깨닫게 된다는



버려졌었다. 그런데 누구인가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었다. 누군가의 입술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래

또한 구원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뜻을 지닌 "모세"라는 이름으로 살

교육을 받았으며 자기 민족을 해방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십 대까지 살았다. 그리고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 끝에

세상이라는 나일강의 물결 위에서 건져진 오늘의 나는 과연 어떤 정신과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가슴 속에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어떤 일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세찬 물결과 악어 떼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서 건져진 모세는 그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모세는 자기 민족을 바로 왕의 고통에서 구원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10가지 재앙을 이용하여 사명을 완수했다.

오늘의 현실은 물결이 넘실거리는 위기의 나일강이요, 코로나19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있는 현실은 몰려드는 악어들의 이빨과 같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시대이다. 강은 생명의 생존을 돕는 번영의 젖줄이지만 한편으론 그 생명을 잡아 삼키는 위기의 현상이기도 하다. 강을 생명의 안식처로 이용하는 지혜와 더불어, 그 강의 위험에서 건져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나만이 건져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숭한 위험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 본다.

sjkcdc@hanmail.net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출 2:6)

사실이다. 우리 자신은 일찍이 나일강과 같이 넘실거리는 강물의 위기 속에 무참하게

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삶의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게 되었다. 어린 모세는 친모를 유모로 맞아 어려서부터 자기 민족의 열고 정신으로

마침내는 자기 민족을 바로 왕의 억압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베드로 진서 26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이런 경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경험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시대 시간 장소 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

문에 누구의 경험이 좋고 나쁘고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나의 작은 경험을 통해 배운 바를 말해보려는 것이다.

한국의 한 호텔에서 밤늦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경험해보신 분만 알리라. 프론트로 전화를 하자 사람을 보내겠다더니 조금 있다가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었다. 엘리베이터가 두 층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이었다. 그는 뛰어내리더니 나를 보고 올라가는데 내 힘으로 뛰어오르는 게 불가능해 보이자 그는 바닥에 엎드린 뒤 자신을 달고 올라가라고 했다. 별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당황한 나는 구두를 신은 채.

나의 경험은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공포심을 느낀 것과 엎드린 사람 위로 구두발로 밟고 올라선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도 그렇지만 사람을 발로 밟고 올라서다니. 그의 요청도 있었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떤 경험으로서만 아니라 오늘도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은 얼마

나 많을까 생각해보니 아찔하고 그런 아찔함도 못 느끼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도 구두발로.

revpeterk@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험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테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폴즈웨이, 윤종석역



일상의 유혹 손성찬, 토기장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시대를 읽다 성경을 읽다 박영호, 복있는사람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인미, 시시울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김기억, 도서출판 KMC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